



2021년 (제17회)

#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사 업 명 경남독서한마당  
운영기간 2021년 1월 ~ 12월  
운영대상 경남도민  
운영내용 독서공모전 및 독서진흥행사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주 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협 력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발 행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055)278-2833  
<http://cwlib.gne.go.kr>  
비매품  
(책표지 출처: YES24)



2021년 (제17회)

#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4 심사평

6 수상작품

**글 부문**

- 초등부 9
- 청소년부 37
- 일반부 51

**그림 부문**

- 초등부 57
- 청소년부 69

**영상 부문**

- 초등부 75
- 청소년부 79

82 2021년(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86 2021년(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87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2005년~2020년)

#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심사평

## 글 부문

책을 읽고 그 감동을 글로 적는 행위는, 문학작품이 독자를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은 재해석되고 감동의 요소도 달라진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에는 글쓰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나고, 감상문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읽히게 된다.

## 초등 저학년

초등 저학년 부문은 저학년답게 양중맞고 귀여운 감상글이 많았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적인 깨달음을 주는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를 읽고 쓴 김수현 학생의 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커가는 어린이에게 농부의 노력과 땀의 결과가 우리의 소중한 밥상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 초등 고학년

초등 고학년은 우선 작품 수도 많았으며, 왕따, 환경문제, 폭력, 로봇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아이의 가치관을 드러낸 수작들이 돋보였다. '밤의 교실' 이란 작품을 읽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개성적인 안목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 청소년

청소년부 작품은 그 수준이 높아 감상문도 하나의 창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대상작인 김아롱별 학생의 작품은 텍스트를 완전히 자기화한 전개가 돋보였고, 초기 이민사를 통해 모성애와 애환을 잘 드러낸 수작이었다.

## 일반

일반부의 응모작들은 모두 수작이라 읽는 내내 흐뭇했다. 대상작으로 뽑은 '시의 의미와 고독의 힘'은 도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명작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높아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글을 읽고 글을 써보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그림 부문

올해 출품된 작품들은 공고문과 책들로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가득했다. 요즘 아이들이 다양하고 기발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초등 저학년 작품들은 책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제각각 자유로운 해석과 표현방법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초등 고학년 작품들은 구도와 드로잉, 스토리 구성력 등 다양한 소재와 섬세한 표현들로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았다.

우리 심사위원단은 열정적인 글과 그림으로 모든 응모자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그리고 수상자들에게 뜨거운 축하 인사를 드리고, 험난한 팬데믹 시대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영상 부문

북트레일러 영상은 종이로 된 책을 읽고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한 뒤에 비로소 제작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창원도서관이 실시한 2021년 경남독서한마당에는 아이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영상들이 많이 모였다.

이번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에 170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책 소개를 담은 영상,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재치있게 전달하는 영상 등 다양하고 참신한 영상들이 공모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물들은 책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만 가능한 작업들이다. 단순히 독후감 형식으로 된 영상도 있고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눈에 띄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녹여낸 작품들도 출품되었다.

이번 심사는 권장 도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즉, 주제 표현의 적합성과 스토리를 재치와 감성을 담은 이미지로 간결하게 전달하여 감상자의 몰입을 주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야기의 구성이 자연스러운 것,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 책을 읽고 재구성한 능력, 발체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매개체로 책 읽은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한 이 시간들이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초등

## 경상남도교육감상 | 초등 대상 |

- 010    진심과 감사를 담아 고마움을 드립니다  
          산청초등학교 2학년 김수현
- 011    나의 눈이 달빛이 되어  
          신안초등학교 5학년 김은총

## 경상남도교육감상 | 초등 최우수 |

- |  |  |
|--|--|
| 013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 일 아니야<br>촉석초등학교 2학년 유지아 | 022    사이버 폭력, 멈춰!<br>북면초등학교 4학년 남예주           |
| 014    나의 눈은 달빛<br>대성초등학교 3학년 공혜린                | 024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요!<br>가고파초등학교 4학년 이경준 |
| 015    보이는 것보다 더 멋진 세상<br>미리벌초등학교 3학년 김보민        | 026    편리한 요즘 일상, 환경을 파괴한다!<br>관동초등학교 4학년 허근녕  |
| 016    걱정꾸러기 내 친구 재은이에게<br>수남초등학교 3학년 김윤서        | 028    위로에서 오는 희망<br>동성초등학교 6학년 김서정            |
| 017    외할아버지의 동전<br>삼정자초등학교 3학년 류도원              | 029    나루에게<br>의령초등학교 6학년 성은별                  |
| 018    어둠을 사랑하는 법<br>분성초등학교 3학년 서해린              | 030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br>함안초등학교 6학년 이서영      |
| 019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br>산청초등학교 3학년 윤건우             | 031    진짜 내 소원<br>진영금병초등학교 6학년 이서영             |
| 020    편의점에서 만난 또 다른 나<br>성명초등학교 3학년 이라라         | 033    관심이 데려온 행복<br>봉래초등학교 6학년 이은주            |
| 021    이불 바다 물고기<br>예림초등학교 3학년 장준호               | 035    하나의 별이 되어 있을 루킹에게<br>동포초등학교 6학년 진소희     |



## 진심과 감사를 담아 고마움을 드립니다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를 읽고

산청초등학교 2학년 김수현

‘콩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감자볶음’, ‘열무김치’,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며 군침을 흘립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아직 수저를 들지 않아 애가 탕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가족은 한 마음 한뜻으로 인사를 합니다. 계란말이를 덩석 집어 입 안에 넣고 밥과 김치찌개를 먹으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콩을 싫어하기 때문에 검정콩을 밥그릇 한 곳으로 몰아넣고 흰쌀만 숟가락에 담아 먹습니다. “아, 음식 남기면 나중에 벌 받는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콩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데, 제천에 계신 할머니가 너를 생각해서 보내주신 거란다. 1년 동안 콩을 재배하려면 씨도 심어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정성껏 농사지어야 한단다.”

“콩을 먹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아버지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콩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에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웃음이 담겨 있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읽은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책에서는 배추는 태백에서, 달걀은 예천에서, 벼는 안동에서, 콩은 제천에서, 감자는 보성에서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더운 날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허리를 굽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콩을 편식한다는 것을 알면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어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깊은 주름에 굽어진 등과 까끌까끌한 손바닥. 그 분들의 어려움과 노력으로, 나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힘들게 풀을 뽑는 김매기를 하시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십니다. 1년 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농부들의 노력과 미소를 생각해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 나의 눈이 달빛이 되어

‘밤의 교실’을 읽고

신안초등학교 5학년 김은총

표지가 눈에 띄는 책이었다. 달, 음표, 음악오선, 헤드폰을 끼고 있는 아이가 있는 그림으로 보아서는 밤에 음악공부를 하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으로 책을 펼치게 되었다.

편안한 그림으로 채워진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정우이다. 수학을 좋아하고 녹대를 좋아하는 아이다. 선글라스를 끼고, 기타를 연주하시는 매력적인 녹대선생님을 만난 정우는 음악수업에 푹 빠져들게 된다.

어느 날, 정우는 ‘끝없는 밤이 올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정우의 표현은 너무 작았다. 심한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걸까? 나는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정우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길을 걸으며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는 정우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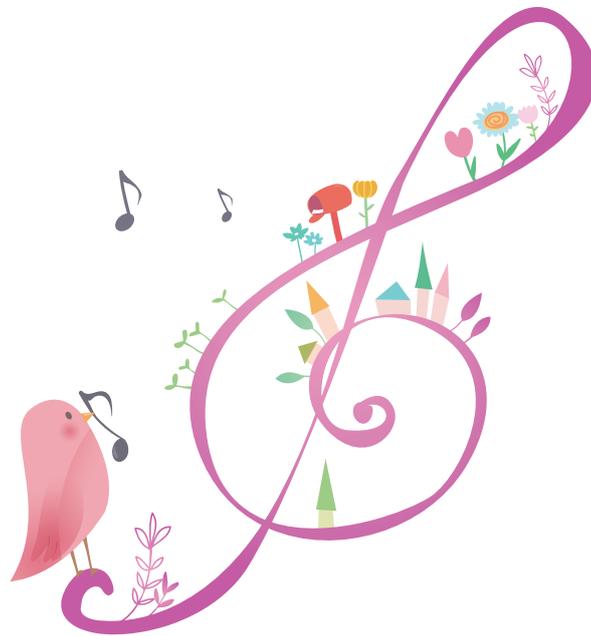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특별한 경험이야. 정우는 아주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뿐이야.” 라는 아빠의 말씀과 녹대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송이의 편지를 통해 정우는 용기를 얻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에서 들려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우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듯하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나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겐 나의 말 한마디도 용기를 줄 수 있고, 큰 힘을 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모두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녹대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정우는 소리를 듣고 녹음하는 숙제를 하게 되었다. 또 녹대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문라이트 세레나데를 들으며 밤하늘을 상상하는데, 나도 정우처럼 눈을 감고 문라이트 세레나데를 들으며 밤하늘을 상상해보았다. 외할머니 댁에서 본 밤하늘이 나의 눈앞에 가득찼다. 눈을 떴을 때 보다 눈을 감았을 때 감동의 깊이는 배가 되는 듯 했다. 녹대선생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기다리고, 준비한 밤의 교실 연주회 날에 정우는 자신의 눈이 달빛이 되어 아이들과 연주하는 음악이 밤하늘에, 우주에 끝없이 펼쳐지는 은하수의 모습을 상상했다. 정우는 이 감격을 기억 속에 저장했다. 그리고 강인하고 따뜻한 선생님의 눈, 어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녹대선생님을 저장했다. 밤의 교실은 나에게 많은 감동을 준 책이다.

표지부터 늑대선생님, 그리고 정우의 성품, 밤의 세계, 잔잔함 속에서 무서운 풍량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 풍량 속에서 또 잔잔함과 감동을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언젠가 정우도 늑대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감동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전하며 밤의 세계를 아름다운 별들로 수놓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나는 밤의 교실의 감동과 가르침을 기억 속에 오래오래 저장하고 살아가고 싶다.





##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 일 아니야

‘이까짓 거’를 읽고

축석초등학교 2학년 유지아

이 책은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비를 맞으며 힘차게 손을 흔들며 뛰어나는 앞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어보았다. 하교시간에 비가 내리자 우산이 없는 아이는 계속 창 밖을 보고 있다. 아마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비가 빨리 그쳤으면 하는 눈치인 것 같다. 우산을 가져온 친구들은 우산을 쓰고 가고,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부모님이 우산을 가져와 같이 쓰고 간다. 아이는 우산도 없고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 어른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올 거라고 거짓말을 한다. 다른 친구들은 다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아이만 우산이 없으니까 엄청 부끄러운가 보다. 이 부분에서 나도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1학년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다. 아침에 비가 올 것 같다고 비가 와도 그 날은 엄마가 아빠랑 같이 서울 병원에 가야 해서 데리러 못 간다고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한 날이 있었다. 신학기라 친한 친구도 없어 우산 같이 쓰고 가지는 말도 못한 채 실내화만 갈아신고 학교 앞에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친구들이 비라도 조금 맞을까봐 마치는 시간보다 훨씬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는 엄마가 병원가셔서 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괜히 눈물이 나왔다.

‘내가 못 챙겼으면 엄마라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챙겨주지’, 아니면 ‘서울 병원 가지 말고 나한테 오시지’ 우산은 내가 안 챙겼는데 엄마가 너무 미웠다.

또 비를 맞고 학원가면 옷이 젖어있어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원도 안 가고 집으로 바로 와버렸다. 이 아이도 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는 1학년 때 같은 반 준호를 만나는데, “넌 안 가냐?”라는 말에 우산이 없던 둘은 재미난 오락게임을 하듯이 내기하며 빗속을 뛰어 준호의 학원까지 가게 된다. 나도 준호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준호는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다.

준호가 가버리고 아이가 또 다시 숨어버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용기를 낸 것 같았다. ‘이까짓 거’ 하며 비를 맞으며 힘차게 뛰어간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아이처럼 조금은 용기가 생겼다. 우산 그거 없으면 어때, 비 좀 맞으면 어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난 아무렇지 않아. 이까짓 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 일 아니야.



## 나의 눈은 달빛

‘밤의 교실’을 읽고

대성초등학교 3학년 공혜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목처럼 수업을 아침에 하는지 밤에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침 수업을 하는 저로서는 밤 수업교실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깊은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맛과 행복이 가득한 ‘함박미소’라는 식당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의 엄마 기분에 따라 ‘함박미소’, ‘함박슬픔’으로 바뀌는 게 신기했습니다. 함박미소에서 함박슬픔으로 변하는 것처럼,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 방해하는 바람에 즐거운 시간을 빼앗겨서, 마음이 기뻐다가 슬픔으로 변하는 정우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정우는 시력이 나날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남들보다 특별히 좋은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내 눈은 달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 빛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아주 조금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며 정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우의 아빠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특별한 경험이야. 정우는 아주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뿐이야.”라며 정우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우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늑대 선생님께서 정우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픈 정우에게 ‘보이는 것만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며, 소리로 세상을 그려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숙제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늑대 선생님께서는 눈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걸 음악으로 가르쳐 주고, 아픈 정우의 마음도 다독여 주셨습니다. 비록 늑대 선생님과 오랜 시간 같이 보내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우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달빛처럼, 보이지 않아도 소리를 통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우를 통해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 진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씩 부딪혀보고 용기를 내면 또 다른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걸모습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우처럼 부딪혀 보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보이는 것보다 더 멋진 세상

‘밤의 교실’을 읽고

미리벌초등학교 3학년 김보민

1학기 때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시력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방학 때 안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시력이 나쁘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안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끄럽지만 나는 자꾸 눈물이 나고 많이 속상했다.

‘밤의 교실’ 주인공 정우는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서 ‘실명’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냥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내 눈에 병이 생겨 끝없는 밤이 온다면? 움직일 때 자꾸 부딪히고,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아름다운 그림도 못 보고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정우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눈물을 참고 더 의젓하게 생활했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시력검사 결과가 나쁘다고 눈물부터 나려고 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다.

정우는 늑대를 좋아하는데 학교에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이 바로 늑대였다. 선생님은 낮에는 눈이 불편해서 선글라스를 쓰시고, 밤에 눈이 편해서 밤에 음악수업을 하기로 했다. 밤의 음악 교실 덕분에 정우는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고, 바쁜 엄마와도 더 가까워졌다.

늑대선생님께서 정우가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가의 노래를 소개해주고 선생님도

눈이 안 좋지만 덕분에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장면에서 감동스럽고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정우아빠는 정우가 안대를 쓰고 눈이 안 보일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같이 눈을 가리고 정우의 눈높이에 맞춰 옆에 누워주었다.

정우가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 걸까?”라고 물었을 때, 아빠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특별한 경험이야. 정우는 아주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뿐이야”하시며 꼭 안아주셨다.

나도 고민이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께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안아준다. 정우도 나처럼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것 같다. 나도 선생님과 아빠처럼 같은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송이는 정우가 좋아하는 늑대도 접어주고 정우가 늑대처럼 강하고 똑똑하고 용감하다고 용기를 주었다. 예찬이랑 진호는 장난꾸러기 같지만 언제나 정우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다. 진호가 울면서 정우의 눈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는 너무 귀여웠다.

정우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내고 보이는 것보다 더 멋진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정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정우처럼 의젓해지려고 노력해야겠다.



## 걱정꾸러기 내 친구 재은이에게

‘걱정 세탁소’를 읽고

수남초등학교 3학년 김윤서

걱정꾸러기 내 친구 재은이에게  
재은아 안녕? 나는 너랑 같은 3학년 친구 윤서라고 해. 요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을 하고 있지? 개학을 하루 앞둔 날 밤, 네가 했던 걱정들이 내가 했던 걱정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어. 사실은 나도 너만큼 걱정이 많은 아이거든.  
그래서인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처음 네가 걱정 세탁소를 찾았을 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걱정을 세탁해준다고? 걱정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걱정 세탁기 사용법을 열심히 읽었어. 물론 너처럼 제대로 되는 게 맞는 걸까, 이상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또 다른 걱정들과 말이야.  
걱정 세탁소에서 걱정을 빨아버린 재은이 너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없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부러웠어. 시험 걱정, 발표 걱정, 숙제 걱정들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은 어떤 기분이었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어?  
나도 걱정 세탁소가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냥 재은이 너를 부러워하고 있을 때였을 거야. 걱정 세탁 시간들이 끝이 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숙제랑 시험들이 그대로 코앞에 닥쳐와 있었을 때 나는 정말 내 일처럼 불안해지고 슬퍼졌어. 재은이 어떡하지? 라는 나의 걱정과 함께 말이야.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그 순간, 재은아 얼른 세탁소로 달려가 STOP

버튼을 누르라고 외쳤어. 그 순간 너도 나도 깨달았던 것 같아. 걱정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을!  
나에게는 네가 찾아갔던 걱정 세탁소같은 걱정 인형이 있어. 걱정이 많은 나에게 엄마가 주신 선물이야. 잠들기 전 베개 밑에 걱정 인형을 두고, 하기 싫은 걱정을 이야기하면 걱정 인형이 내 걱정을 모두 가져가 줄 거라고 엄마께서 말씀해주셨어. 물론 엄마 말처럼 걱정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 인형과 같이 잠들기도 해.  
재은아, 나는 너의 걱정 세탁소와 나의 걱정 인형을 보면서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면 걱정과 함께 계획하고 대비하는 게 더 멋진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 걱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걱정들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의 뿌듯한 기분과 마음들이 난 더 행복하고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무조건 걱정하기 싫어가 아닌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할 거야. 나랑 많이 닮은 걱정꾸러기 재은아! 걱정해도 괜찮아! 이 말을 꼭 해 주고 싶었어.  
너를 만나고 걱정 세탁소를 알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2021년 8월 걱정꾸러기 친구 윤서가



## 외할아버지의 동전

‘이불 바다 물고기’를 읽고

삼정자초등학교 3학년 류도원

처음 ‘이불 바다 물고기’라는 책 제목을 봤을 때, 어떤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따뜻한 이야기였다. 주인공 혜성이는 장마가 끝난 뒤 엄마가 햇볕에 널어놓아 바삭 마른 바다 무늬 이불에 누웠다. 그리고는 이불 바다 속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 할머니를 찾아 떠난다.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만두와 원피스를 사들고서.

책을 읽으니 나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뵙고 싶어졌다. 외할머니댁에 가면, 외국 동전이 가득한 동전 항아리가 있다. 외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배를 타고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홍콩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항구를 가 보셨고, 각 나라의 동전을 모으셨다고 한다. 나는 그 동전들을 볼 때면 외할아버지 생각을 한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여러 나라의 도시와 항구를 방문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 나도 기회가 오면 외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느끼고 싶다.

내가 만약 꿈 속에서라도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혜성이가 할머니를 위해 만두와 원피스를 구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커피와 바닐라라떼를 드리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할아버지는 지금 자유롭게 전 세계의 항구를 돌아보고 계시나요? 할아버지와 다시 한 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사랑해요!”



## 어둠을 사랑하는 법

‘밤의 교실’을 읽고

분성초등학교 3학년 서해린

‘밤의 교실’ 표지는 파스텔처럼 예쁜 도화지 같았다. 오선지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는 음표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반짝이는 은빛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있어 내 마음에 속 들었다. 주인공이 헤드셋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다.

수학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우가 주인공이다. 정우는 어느 날 눈이 흐릿하게 보여 안과에 간다. 의사선생님은 정우에게 ‘끝없는 밤’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정우는 무섭고 두려워하지만 표현하지 않는다.

정우는 안대를 쓰고 끝없는 밤이 오는 것을 연습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정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늑대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늑대 선생님은 주변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라고 하신다. 정우는 눈을 감고 사랑하는 아빠의 코고는 소리, 엄마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짹짹 새소리, 짹짹 새소리 빛소리를 들어본다. 여러 소리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해보며 흥미를 느낀다. 정우 자신이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좋아한다.

정우의 입에서 사르르 미소가 퍼져나가기도 한다. 밤의 교실에서 연주회가 열린다. 정우는 음악을 연주하며 벽찬 감동을 느끼게 된다. 늑대선생님은 정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달빛처럼 살아. 어두운 곳을 비추면서.”라고 말씀하신다.

정우는 여전히 무섭고 겁이 나지만 용기를 내어 본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찾아낸다. 마침내 정우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 정우처럼 어둠을 이겨내려면 아프거나 힘든 것도 잘 견뎌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참고 이겨낸 정우가 대견하고 멋져 보이기도 했다.

나도 정우처럼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의 소중한 강아지 구름이를 무지개다리 너머로 보낸 일이다. 구름이는 나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는 귀여운 나의 친구였다. 구름이가 떠난 후 주르륵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매일 울며 힘들어하는 나를 보며 ‘애착인형’을 선물해주셨다. 내 귀여운 친구 구름이와 똑같은 이름을 지어 구름이라고 부른다. 매일 잘 때마다 구름이를 꼭 껴안고 잔다. 그러면 꿈 속에서라도 구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구름이를 안고 자니 솜사탕같이 폭신한 구름 위에서 구름이와 항상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 속 슬픔도 사라졌다. 마음도 뽕송뽕송 베개처럼 편안해졌다.

나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애착인형과 함께 해보기를 바란다. 새하얀 솜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을 가진 애착인형과 함께 한다면 아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내가 힘든 일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가능할 것이다. 나에게는 멋진 미래가 있으니까. 아자 아자 화이팅!



##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

‘걱정 세탁소’를 읽고

산청초등학교 3학년 윤건우

“괜찮아! 지금 나한테는 걱정하는 마음이 필요해.” 이 부분을 읽으며 걱정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느껴져 걱정 많은 저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재은이에게 공감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재은이처럼 걱정이 많은 탓에 저녁에 잠을 쉽게 들지 못하거나 아침밥이 잘 넘어가지 않거나 심지어는 속이 좋지 않아 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이런 성격이 맘에 들지 않았고, 걱정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걱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 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걱정 세탁소’를 통해 걱정이 사라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재은이는 자신의 걱정을 빨리 위해 걱정 세탁소에서 1시간 세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학교에서 치는 진단평가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면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12시간이 되고 12시간이 30일이 되면서 걱정을 빠는 기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재은이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입니다.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 세탁소 때문에 사라졌지만, 응급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재은이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재은이는 다시 걱정 세탁소를 찾아가 걱정을 되돌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재은이를 보고 제가 걱정이 많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걱정이 많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저는 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편의점에서 만난 또 다른 나

‘편의점’을 읽고

성명초등학교 3학년 이라라

이 책에는 범수와 찬혁이가 나온다. 범수는 아빠가 쉬는 날이면 늘 술 취한 아빠에게 얻어맞곤 한다. 찬혁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을 먹는다. 그 날도 범수가 아빠에게 대걸레로 얻어맞고, 창 밖을 보는데 찬혁이가 컵라면 국물 속에 담배꽂초를 넣은 것을 모르고 마시려고 해서 급하게 말리다가 실수로 라면국물을 머리에 뒤집어쓰게 된다. 쏟아진 국물을 같이 치우고 찬혁이가 준 컵라면도 먹으며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찬혁이는 범수가 아빠에게 자주 맞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범수는 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찬혁이에게 작아진 자기 슬리퍼를 갖다 주었다. 찬혁이는 고마워하면서 큐브퍼즐을 주며 친구가 된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빠가 던진 술잔에 맞아 쓰러진 범수를 본 찬혁이는 범수를 도와주고, 병원에 입원한 범수에게 새로운 큐브를 준다.

나는 범수와 찬혁이를 보면서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범수와 찬혁이는 둘 다 부자가 아니다. 나도 부자가 아니다. 우리 아빠는 범수아빠처럼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찬혁이 할머니처럼 몸이 약하다. 나는 범수와 찬혁이와 다른 점도 있었다. 우리 집은 이사를 항상 많이 다녀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다.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다.

내가 만약 편의점에서 범수나 찬혁이를 만난다면 금세 친해졌을 것 같다. 그리고 절대 이사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부자가 아니어도 범수와 찬혁이 두 친구와 아마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겼다. 우리 학교 3학년은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이 전학을 온 것이다. 그 친구도 범수와 찬혁이처럼 부자가 아니고, 엄마가 암에 걸려서 힘든 친구였다. 마치 범수와 찬혁이처럼 우리 두 사람도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나는 정말 이사를 안 가고 범수와 찬혁이처럼 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싶다.



## 이불 바다 물고기

‘이불 바다 물고기’를 읽고

예림초등학교 3학년 장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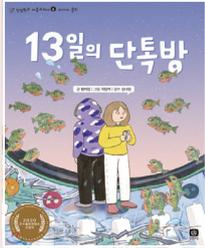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가 그려진 이불이 있다. 햇빛에 말렸을 때 정말 뽕뽕송송하고 좋은 냄새도 난다. ‘이불 바다 물고기’를 읽고 1학년 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만두를 사서 할머니를 찾아가는 주인공을 보니 나도 물고기나 고양이가 되어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는 소주를 좋아하시고, 군밤을 좋아하셨다. 우리가 갈 때마다 군밤을 까서 먹으라고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다.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금도 너무 보고 싶다.

할머니께서 49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 영혼이 49일 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나 보고 싶은 사람, 평소에 좋아하던 곳을 다 돌아보고 떠난다고 하셨다. 지금도 정말 궁금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도 오셨을까? 나와 동생, 형도 보고 가셨을까?

지금도 할머니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서 오실 것만 같다.





## 사이버 폭력, 멈춰!

‘13일의 단톡방’을 읽고

북면초등학교 4학년 남예주

도서관에서 ‘13일의 단톡방’이라는 책을 봤다. 웬지 제목이 재미있어 보였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들었다. ‘왜 제목이 13일의 단톡방일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이 책은 민서와 반 친구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커인 루킹이라는 아이가 나온다.

민서는 어느 날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커인 루킹에게 도움을 청하고 루킹 덕분에 아이들이 왜 자신을 따돌리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민서는 루킹의 도움으로 반 친구들의 단톡방을 보게 된다. 단톡방을 보고난 후 민서는 아이들에게 따졌고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 때 반 친구가 민서의 편을 들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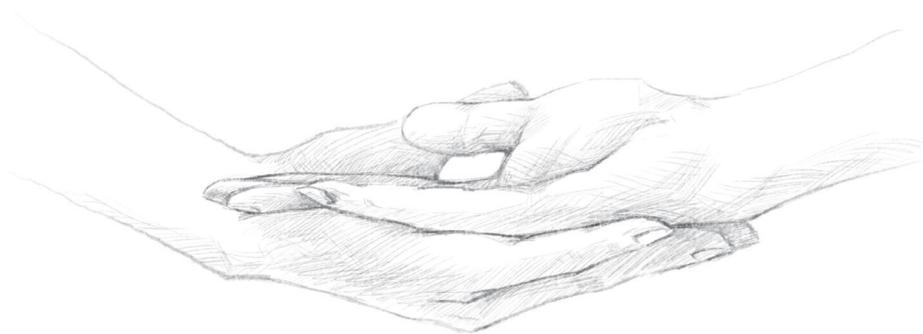
그 후 교실에서 일어나던 괴롭힘도 단톡방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도 아이들은 민서를 계속 괴했다. 민서는 루킹과 대화하던 중 루킹은 자신이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민서가 루킹을 조금 놀렸는데 루킹은 민서에게 그 후로 톡을 안 한다. 민서는 루킹의 정체를 추적하다가 6학년인 은표라는 언니에게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나루라는 아이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민서는 나루가 루킹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나루에 대해서 더 물어봤다. 은표언니는 나루가 작년에 병으로 죽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민서는 며칠 뒤 루킹에게 톡을 보냈다. 루킹은 자신이 나루라고 말하고 민서에게 속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루킹의 글씨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루킹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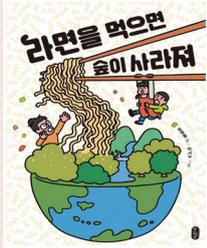
이 책은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말해주고 있다. 글 한 자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글 한 자에는 또 얼마나 큰 무서움이 있을까? 친구들은 왜 민서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민서네 반 친구들이 민서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지켜보는 것도 고통일 것 같다. 그리고 민서가 자신도 모르게 사이버 폭력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게 폭력을 받고 있을까?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민서처럼 그만큼 까지는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지는 않다.

사이버 세계에서 가해자는 실제로 만나서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가상세계에서 폭력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다.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이버 폭력은 얼마 아닌 일 따위로 시작해서 언제든지 큰 일이 된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너무 괴로우면 자살까지도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사이버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인공인 민서는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면 부모님께 말하고 선생님께도 말했을 것 같다. 이 책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이 세상에서 폭력이 없어지고 평화가 많아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루킹,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길 빌게!’





##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를 읽고

가고파초등학교 4학년 이경준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는 우리집에서 내가 1등이다. 라면은 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다. 엄마가 해 주시는 된장찌개, 계란말이도 맛있지만 라면이 더 맛있는 건 엄마한테 비밀이다. 라면은 끓여 먹어도 맛있고, 뿌셔 먹어도 맛있다. 기름에 튀긴 라면은 그냥 먹어도 과자처럼 바삭하고, 끓여 먹으면 탱글 탱글한 면발이 자꾸만 당기는 맛이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먹는데 숲이 사라진다고 하니 깜짝 놀랐다. 라면과 숲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동네 회원천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종이도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숲을 오염시킨다고 하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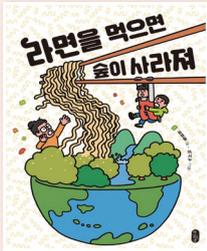
라면을 튀길 때 기름 야자 농장에서 만든 팜유로 라면을 튀기는 것이 문제였다. 기름 야자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불태웠고, 그 때 수많은 오랑우탄과 야생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기름 야자 농장에서 만들어진 팜유는 라면뿐만 아니라 치약, 비누, 샴푸, 세제, 화장품 등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 산에 나무를 벌목하고 동물들의 살 곳을 빼앗아 버린다.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또한 숲을 없애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생들과 도미노 게임을 하다가 작은 실수로 도미노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공들여 쌓아올렸던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던 것이 생각났다. 갑자기 모든 생태계가 도미노처럼 서로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먹은 라면과 햄버거, 박수치며 좋아했던 돌고래쇼, 멋있게 생각했던 우리 집의 통유리창 등 사소한 것들이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돌고래들과 양, 고래, 새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살 곳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 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을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미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큰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조심해야 한다. 나도 먹이그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작은 실천과 가까이에서부터 매일 매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라면도 적게 먹고 햄버거도 안 먹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고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보다는 책이나 유튜브로 동물들을 볼 것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벌레와 곤충이라도 도미노처럼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작은 행동도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조심조심 다시 환경보호라는 도미노를 쌓다보면 어느새 깨끗한 지구로 변해있을 것이다.





## 편리한 요즘 일상, 환경을 파괴한다!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를 읽고

관동초등학교 4학년 허근영

우리 가족의 일상 속에는 매일 새벽에 도착하는 쿠팡박스가 있다. 엄마, 아빠께서 출근을 하시니 마트가기 힘들고 피곤하셔서 쿠팡 로켓 배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편리함을 주는 로켓 배송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 번 쿠팡 로켓 배송이 도착해서 포장을 뜯고 박스를 정리하고 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것이다. 많은 양의 비닐, 박스와 플라스틱 용기들 말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옆집에도 쿠팡을 자주 시키고, 아랫집과 윗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주문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만 해도 태산일 것이다. 우리 율하동에서 하루 동안 나오는 쓰레기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김해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루 쓰레기를 생각하는 순간 쓰레기 더미가 나를 덮치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이 책의 내용은 요즘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모두 표현한 ‘환경오염 백과 사전’같다.

지구 온난화, 숲의 파괴, 로드킬 등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환경 문제도 있었고, 유리벽 때문에 죽어가는 새들, 나비와 벌의 감소 이유 등과 같이 새로 알게 된

환경 문제들도 있었다. 이 문제들 모두가 걱정스럽고 속상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문제가 두 가지 있다.

먼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요즘 입는 패딩이 거위와 오리의 털을 뽑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직 인간의 따뜻함만을 생각해 패딩을 만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오리와 거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당장이라도 멈춰버리고 싶었다.

사람들이 동물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 동물의 털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충전재로 만든 옷으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따뜻하고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 잔인했다. 내 옷 중에도 거위털 패딩이 있다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번에 옷을 살 때는 엄마께 꼭 인공충전재로 만든 패딩을 부탁드려야겠다.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쇼가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고래를 보러 가면 오해를 한다. ‘돌고래는 먹이를 던져주면 그냥 먹으면 되고, 헤엄치고 쉴 수 있으니 부럽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래 돌고래는 아주 넓은

바다를 시속 80km로 헤엄치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수족관은 돌고래에게 굉장히 좁아서 우리를 아주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넓은 제주도 바다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며 살던 제돌이라는 돌고래가 불법으로 잡혀 수족관에 팔렸다가 다시 바다로 풀려난 일이 있었다. 제돌이는 너무나 다행이지만, 수족관으로 잡혀간 다른 돌고래들은 너무 안쓰러웠다. 사람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얻으려고 돌고래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다. 푹푹하고 멋진 공연을 하는 돌고래쇼를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돌고래와 기념촬영도 하고 즐겁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돌고래는 즐겁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쇼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환경과 동물들에 관한 문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편리함을 느낄 때마다 지구는 점점 아파가고 있다. 우리 생각보다 지구가 많이 아파서 빨리 치료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구가 너무 병이 깊어져서 치료가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우리가 지구를 건강하게 하려면 할 일이 아주 많다.

제일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일회용품의 편리함 때문에 지구는 점차 아파가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사용을 줄이고,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써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숲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팜유, 커피, 아보카도 같은 식물을 심거나 땅을 개발하기 위해 숲을 없애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다. 숲을 보호하면 공기도 좋아지고, 온실가스도 줄어들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늘어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막을 수 있다.

또 동물들을 학대해서 만든 물품은 사지 말고, 공연도 보지 말아야 한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 그 공장은 나쁜 짓을 더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환경과 동물을 모두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부터 택배를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지구야, 미안해! 앞으로는 나부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할게! 아프지 말고 건강해!”



## 위로에서 오는 희망

‘밤의 교실’을 읽고

동성초등학교 6학년 김서정

‘밤의 교실’이란 책은 주인공 정우가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이야기이다. 정우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도 수학을 좋아하는 모범생이고 늑대를 좋아한다.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며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정우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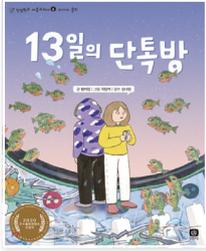
어느 날 정우의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온 세상이 암흑이 되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 정우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늑대 선생님이 오시고 정우와 같은 처지인데도 밤의 교실을 운영하며 정우를 절망 속에서 꺼내준다. 정우에게 숙제를 내주고 일상의 모든 소리를 마음에 담아보면 새로운 것이 들리고 보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음악에 담을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엔 처음처럼 땅바닥 말고 풍경을 보면서 걷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정우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망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더 좋게 바뀌어 나가게 된 이유는 아마도 늑대 선생님이 주신 관심과 할 수 있다는 용기, 송이의 따뜻한 편지, 부모님의 보살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정우가 현실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나만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 현실이라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것 같다. 희망도 없고 용기도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절망할 지도 모른다.

그럼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는 위안일 지도 모른다. 문득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과 상황에 대해 나아질 수 있도록 생각해 보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힘들어지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위로 받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 나루에게

‘13일의 단톡방’을 읽고

의령초등학교 6학년 성은별

안녕? 난 은별이라고 해. 네 얘기를 봤어. 겨우 친해지려 했던 친구들과는 어떤 무리 때문에 친해지지 못하고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 말이야. 이 얘기를 읽고 네가 너무 안쓰럽고 그냥 불쌍하게만 느껴졌어. 하지만 계속 읽다가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 내가 4학년이었을 때도 반 친구들과 잘 친해지지 못한 친구가 있었거든. 그 뒤로 바로 사과했지만, 그 당시 그 애한테는 내 무관심도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너도 나와 같은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

근데 나루야, 은표같은 친구가 있었듯이 너를 좋아한 친구는 더욱 많았을 거야! 넌 매력적이고 친절하니까. 특히 네가 민서에게 했던 “정말 이상한 건 애들에게 복수해도 풀리지 않던 마음이, 너를 돕고 너를 아끼니 풀리더라.”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 평소에 내가 당하면 복수할 생각밖에 없었는데 네 말을 들으니 내가 옳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네 마음이 어떨 지도 알 수 있었어!

다른 점으로 너희 반 친구들과 친해지긴 어렵게 되었지만 민서는 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하려는 마음도 대단하다고 느꼈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테니 말이야. 나루야 너는 정말 착하고 정이 많은 아이 같아. 네가 살아있었을 땐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루킹일 때도 악의를 무시하지 못하고 민서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한 걸 보니까 말이야. 또 민서도, 은표도 그런 너의 장점을 잘 찾아준 것 같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네가 후회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 다 해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자면 ‘남 신경 쓰지 말고 용기 내어서 말 걸어보기’ 같은 거 말이야. 잊을 수 없는 일인 거 알지만 난 네가 상처받았던 일, 듣기 싫었던 말은 전부 잊고 새롭게,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면 좋겠어! 난 너를 믿어. 그리고 은표, 민서, 또 다른 친구들 어찌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네 덕분에 앞으로 반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는 정말 특별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루니까 더 이상 얼음에만 갇혀 있지 말고 얼음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어. 잘 지내, 나루야!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편의점’을 읽고

함안초등학교 6학년 이서영

나는 편의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파는 이곳은 말 그대로 ‘편리한 상점’이다. 그런데 ‘편의점’이라는 책 표지에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우울하고 불안해 보여서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가는 편의점과 이 아이들이 가는 편의점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까 하는 호기심으로 읽어가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들르는 편의점, 이곳을 다른 목적으로 매일 오는 찬혁이와 찬혁이를 지켜보는 범수가 있다.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먹기 위해 편의점을 서성거리는 찬혁 그리고 창문 넘어 몰래 쳐다보는 범수. 이 둘은 모두 폭력에 상처받는 아이들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범수를 때린다. 1년 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상했던 아빠였기에 예전의 아빠로 돌아올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가정 폭력을 견디는 범수가 답답했다. 아빠를 다독이며 바쁜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묵묵히 견뎌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범수가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찬혁이는 돌봐줄 어른이 없어 무관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이다. 누가 더 비참한 지 어려운 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보며 위로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답답함이 책을 보는 내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저 이야기니깐 끝까지 읽어 나갔지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다른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구해 주고 싶은 생각에, 범수는 담배꽂초가 든 컵라면을 찬혁이가 먹지 않도록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찬혁이는 반대로 범수를 구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폭력을 배워가며 살고 있다. 누군가는 알면서도, 다른 누군가는 알지 못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어린 왕자’에 나온 여우가 했던 말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길들여지면 폭력이 옳고 그름을 떠나 폭력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어린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놀랍게도 많다고 한다. 범수처럼 찬혁이처럼 고개를 들어 조금만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진짜 내 소원

‘진짜 내 소원’을 읽고

진영금병초등학교 6학년 이서영

많고 많은 고학년 선정도서 중에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소원’이라는 낱말 때문이다. 누구나 마음 속에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더 잘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책을 읽기 전에는 소원이 없어서 소원에 대해서 더 궁금했다. 그래서 유독 더 이 책이 끌렸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그림동화였다.

6학년이 그림동화라니? 그러나 막상 펼쳐보니 그림이 가진 뜻을 가만히 상상해보게 되었다. 또 짧은 설명이 붙어있어서 더 재미있었다.

이 그림동화의 주인공 남자아이가 호리병을 문지르자 지니가 나와서 아이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첫 번째 소원으로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엄마였다. 아이의 소원이 아닌 엄마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아이가 돈을 잘 벌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하자 이번에는 아빠에게 새 차가 생겼다. 아빠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니가 이제 마지막 소원이니 자신의 소원이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세 번째 소원은 1년 뒤에 말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가 다시 지니에게 세 번째 소원을 말한다고

하자, 지니는 “1년 뒤에 소원을 말하는 게 소원이었잖아? 그러니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이 책이 배달되었을 때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림동화라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너무 속상했다. 반쯤하는 것도 복잡해서 일단 읽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림이 뜻하는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구경하듯 그림을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 품고 있는 숨은 내용을 읽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은 읽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이 맞았다.

이 책을 천천히 뜻을 풀어가며 읽고 나자 문득 나도 내 꿈이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들쭉날쭉 가야 되고, 막상 학교에 가도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시간도 많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가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라고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나 집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소원은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당당히 말하는 친구도 많은데 나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 부모님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선택한 삶을 산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깨달았을 때 대부분 늦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사촌언니들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만일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 후회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다. 물론 부모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실패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후회와 부모님을 향한 원망은 하지 않게 된다.

어렸을 때는 이거 할 걸 저거 한 번 해볼 걸 이러면서 꿈을 키운다. 그 꿈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고 해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면 후회 안하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었기에 책임도 나 자신이 질 것이다. 그 누구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결정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앞에 놓여있는 선택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소원은 뭘까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지금 내 소원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겠지? 6학년이 되면서 수학여행 가는 걸 무척 기대했었는데 못 가게 되어 엄청 실망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책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지니가 나타나 한 가지 소원만이라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에는 지니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려면 노력이 꼭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모임을 하고 여행가고 술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토록 종식이 늦어지고 있다. 조금만 참고 모두 노력해준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종식될 거라고 믿는다. 지금 5학년인 친구들은 꼭 내년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고 반드시 노력할 것이다.



## 관심이 데려온 행복

‘편의점’을 읽고

봉래초등학교 6학년 이은주

나에게 편의점은 평소에 다이어트할 때 몰래 가서 간식을 사 먹고, 친구들과 심심할 때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흥미로운 일이 생길까,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일상이나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보았다.

하지만 ‘편의점’은 한 편의 동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아동학대의 현실과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려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범수는 술 마신 아버지의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데, 방치되어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는 쉬는 날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친절한 분이었지만, 사고를 당해 직장을 잃은 뒤부터 술을 마시고 범수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붓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는 화풀이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사고를 당해 직장을 잃은 아버지를 대신 해서 가장이 되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범수가 학대당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니, 어느 정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외면하고 방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물론 범수를 사랑했겠지만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범수를 위해 현실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해야 했다.

아동학대를 하는 범수 아버지와 외면하는 범수 어머니, 그 속에서 상처받는 범수의 모습은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작년 여름에 경남에서도 학대받던 4학년 아이가 집에서 탈출해 시민이 편의점에 아이를 데려가 챙겨준 뒤 신고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편의점’을 읽고 다른 아동 학대 사례도 검색해봤는데 입양아이 학대 사건, 영아 학대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나왔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가족들 사이에서 즐겁게 지내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고, 주말에 함께 누워서 쉬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많은 일상들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

범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다. 범수에게는 찬혁이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범수의 친구로 등장하는 찬혁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께서는 입원하셔서 돌봐줄 어른이 없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으며 지낸다.

범수와 찬혁이는 서로에게 비밀이 들켜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창문 너머로 항상 함께 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유일한 친구다. 그리고 범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범수에게 던진 날,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찬혁이가 편의점 형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친 범수를 바로 구해주었다. 찬혁이처럼 친구를 잘 살피고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대신 도움을 요청해줘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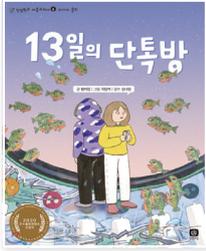
범수와 찬혁이의 가정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범수와 찬혁이가 느끼는 외로움은 어느 면에서는 공감이 된다. 나는 예전에 웬지 모르게 우울하고 외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옆에서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서 괜찮아진 기억이 있다. 범수와 찬혁이처럼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어려울 때 달려와 주는 친구가 있다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범수와 찬혁이를 도와준 또 하나의 관심이 있다. 바로 편의점 형이다. 편의점 형은 찬혁이에게 남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해주며, 찬혁이와 범수

에게 쏟은 테이블을 치우라며 화를 내면서도 컵라면을 주고, 범수가 위기상황일 때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툭툭거리지만 상냥한 사람이다. 뉴스 사례에서도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는 동네 사람, 편의점 직원, 학교 선생님같은 주변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는 소외되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내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마음에 와 닿았다. 범수와 찬혁이는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서 괜히 나도 뿌듯했다. 편의점 형처럼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지막에는 범수의 아버지도 반성하고, 알콜 중독 치료를 받으며, 어머니도 범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범수네 가족이 다시 회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편의점 이야기처럼 위기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주변 친구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가정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범수와 찬혁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하나의 별이 되어 있을 루킹에게

‘13일의 단톡방’을 읽고

동포초등학교 6학년 진소희

루킹, 안녕!

나는 동포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진소희라고 해. ‘13일의 단톡방’을 읽고 하늘에 있을 너에게 편지를 써. 그곳에서는 잘 지내지? 루킹 너는 씩씩하고 대견한 아이니까 잘 있을 거라 믿어.

먼저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민서가 왕따를 당할 때 민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조언까지 해줬던 널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난, 네가 말은 차갑게 해도 마음은 참 따뜻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게. 내가 왕따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사이버 폭력과 왕따의 심각성은 나도 잘 알아. 민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잘 알 것 같아.

난 처음에 네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구분이 안 갔어. 단톡방에 들어와 익명처럼 말하고 나가는 네가 나쁜 아이일까? 아니면 단톡방에서 할 말 다하고 나가는 네가 착한 아이일까? 라는 궁금증들이 마구 샘솟기 시작했어. 하지만 네가 민서를 도와 줄 때부터 널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나라면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할까 봐 도와주기 망설여졌을 것 같아. 근데 넌 어떤 망설임없이 민서를 도와줬잖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도 내 주변에 너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요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들어볼래?

“달을 향해 쏘라. 빛나가도 별이 될 테니”

나는 이 글귀가 너무 좋아. 비록 나만 눈에 띄는 별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눈에 띄는 별을 더 환하게 비춰줄 수 있잖아. 이 글귀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네가 생각나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네가 만약 하늘에서 힘들거나, 버거울 때 혼자 끙끙 앓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 털어놓아도 좋으니 혼자 힘들어 하지마! 난 누가 힘들고 아픈 게 정말 싫거든. 그러니까 너도 힘들지 말고 아프지도 마. 힘들고 아프면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풀어. 내가 13년을 살았지만, 참는 게 꼭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 이걸 내 경험담이고.

넌 꼭 잘 될 거야. 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존재니까. 항상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줘.

그 별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별보다는, 그런 별들을 받쳐주는 그런 별이 되어줘.

내가 언젠가 밝게 빛나는 수억만 개 중 하나의 별이 되어 먼저 별이 되어 있을 널 비춰주는 그런 별이 될게. 하늘에서도 행복해, 루킹!

- 항상 루킹을 응원하는 하나의 별, 진소희가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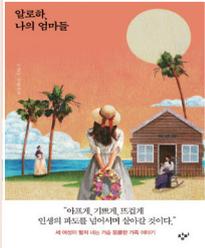
글 부문  
청소년

## 경상남도교육감상 | 청소년 대상 |

- 038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1학년 김아롱별

## 경상남도교육감상 | 청소년 최우수 |

- 040 갈매기의 꿈  
진해냉천중학교 1학년 이서연
- 043 오늘부터 나는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시민입니다.  
양산중앙중학교 3학년 박서연
- 045 필터 버블에 갇힌 미디어  
김해대청고등학교 2학년 강다혜
- 048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칠원고등학교 2학년 조유빈



##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읽고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1학년 김아롱별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늘 일순간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인간이 ‘행복’ 앞에서 고민 따위를 하겠는가. 하지만 삶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닌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은 맹목적으로 ‘행운’이란 이름으로 사람들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의 행복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아주 신성하고도 거리가 먼 감정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음은 ‘불운’ 속에서 ‘행복’을 찾고, 내 마음속 대중들(의식)의 눈시울을 붉게 적신 ‘나의 엄마들’의 인생 여정 속에 있다.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의 재수나 운명과 무관하게 무엇인가 초월적인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내일 떠날 결혼 길을 앞에 두고 어머니와 단둘이 누워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대 찬 분위기의 흐름을 깨고 들어선 비극의 상태에서 가정을 시작해야 하는 버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다. 아무도 곁에 없는 그 정적 속 흐느낌이 참 애처롭다. 하지만 마음속의 쓰고 단 이야기를 통해 주변 사람과 정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은 존경스럽다. 곳곳하게 아이를 낳고 가정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그녀들의 근성은 위대하다.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그녀들의 의지는 믿음직스럽다. 그렇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인생이 자신을 내팽개쳤을 때, ‘의연함’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더욱 굳어져서 주체성 있는 믿음과 신념을 간직하게 해준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위버멘쉬’ 사상을 떠오르게 한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끊임 없이 방황하고 심란해지며 그런 문제들의 불가피한 반복이 삶의 한 진리가 된 것 같은 ‘나의 엄마들’의 부단한 노력과 각오가 마치 초인(超人)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부단한 노력은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헤쳐 나가는 생존 방법이지 근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무상한 삶이 운명이 되어버린 그녀들이 애처롭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선 생존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어찌면 가장 행복한 것일지 모른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가난, 가족의 죽음, 이웃의 배척과 같은 ‘불운’이 오더라도

도 새로운 각오가 삶 속에 개입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불운’을 완전히 넘어서는 순간, ‘위버 멘쉬’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욕망’은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 호흡과도 같은 절대적 근성이다. 그렇기에 열악한 상황과 순간순간 찾아오는 황당한 문제와 그런 배경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의 엄마들’ 같이 ‘불운’의 조건 속에서 이런 욕망의 충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으로서 제 도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불운’의 환경에서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은 그저 과감하게 나아가라. 부딪쳐라. 많이 들어본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가장 멋지고 신비롭고 오랫동안 묵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동기들과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는 말들이다. 나의 소중한 엄마들도 그리하지 않았는가. 나의 소중한 엄마들의 간절함이 여기까지나 넘어서 느껴진다.

또한 ‘무지개’라는 개념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사람은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생 친구였던 버들과 홍주, 명선과 명옥이. 그들의 우정과 추억을 비추어 볼 때 아무 가치도, 영향력도 없는, 티끌과도 같아서 그 아름다운 유대의 테두리를 감히 넘어갈 수 없는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갈라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안타깝고 ‘불운’과도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평소 나는 정치적인 개별 입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눈길을 돌려 보곤 하는데, 이 아름다운 구성이 훼손되는 모습 앞에서 이승만이 잘 났냐, 박용만이 잘 났냐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픔의 거리들이 잠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스스로의 일상을 중지시키고 ‘유대’라는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로 서로를 보듬어 준 여성들의 관계는 비 온 뒤 웃고 있는 무지개만 치나 아름다웠다. 따라서 옛 벗들이 다시 만나 뭉친 ‘무지개’계의 소중한 의미와 상징이 우리 사회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 여성들의 화목이 필요 이상의 여야 갈등으로 무엇인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또, 독립은커녕 아군들끼리 싸우고 뉘다가 난리가 난 일제강점기 시절 속에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였다면 하고 생각해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의 일상 속에 함께 있어주었던 버들, 홍주, 송화를 만나게 된 후의 내게 일어난 심리적 변화는 필히 판도라 상자를 열어본 후와 같이 영향력이 크리라 장담한다.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았었던 그때 그 시절 속 여성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들판에 핀 꽃 같이 향기롭고 매혹적일 만큼 따뜻하다. 갓난아기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감싸주는 보편적인 엄마의 모습은 감개무량하기에, 그녀들을 ‘나의 엄마들’이라고 불러봄으로써 그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싶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의 레어로 엮어져 필을 반겨준 것을 보면 이 공동체는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발자취인 것 같다. ‘나의 엄마들’이 말한 것처럼, 필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그 파도를 향해 끊임없이 부딪쳐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그게 바로 인류가 살아남은 문명의 토대 이니까 말이다.



##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을 읽고

진해냉천중학교 1학년 이서연

자유는 무엇인가? 나는 ‘갈매기의 꿈’을 읽기 전 까지 자유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신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제약 없이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책을 읽고 나니 자유는, 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추가되었다.

책 속의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은 인간들의 선박에서 나오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만 날개를 움직이는 무리의 다른 갈매기들과는 다르게 순수한 마음으로 비행을 연구한다. 수천 미터의 상공에서 날개를 접고 수면으로 쏜살같이 돌진하거나 공중에서 여러 가지 회전을 익히며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모든 갈매기들이 더 이상 빵 부스러기에 의존하지 않고 바람을 가르며 멋지게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 하지만 무리의 갈매기들은 자신들처럼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삶에 더 나은 의미를 부여하는 조나단의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치부하며 무리에서 추방해 버린다.

자유는 반대말은 구속이나 통제가 아니라 획일성이라고 생각한다. 조나단은 자유롭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으나 그것이 대다수의 갈매기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추방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별종’이 된 것이다.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계급이 지배적이던 시대에서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어쩌면 자유는 꿈도 꾸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강자들은 약자들의 머리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기 시작했기에 조금씩 세상은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인종과 성별, 출신, 종교, 외모, 장애, 성 정체성, 나이 등에 따른 차별과 그들을 공격하는 눈초리, 심한 경우 폭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같음’이 아닌 ‘다름’이 권장되고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조나단은 자신을 내쫓은 무리를 원망하거나 충격에 좌절하지 않고 갈매기들을 안타까워하며 더욱 비행에 몰두한다. 그렇게 자유를 만끽

하며 오랜 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하던 조나단은 어느 날 찾아온 빛나는 갈매기들과 함께 빛이 되어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자신처럼 비행을 수행하는 갈매기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빨리 날거나 어려운 동작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한계를 깨트리는 등의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 또한 하고 있었다.

나는 조나단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한순간도 나태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몇 번이고 바다로 곤두박질쳐 몸이 매우 지쳤을 때도 힘이 덜 드는 저공비행을 택하는 대신 힘껏 날갯짓하며 비행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내가 자유는 실천할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 이유이며, 방학을 맞아 나태해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스스로 불가능의 기준인 한계치를 지워낸 조나단처럼 ‘불가능한 것’과 ‘불리한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나도 힘든 상황일수록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까지 배우게 된 조나단은 다시 지상의 갈매기들에게 눈을 돌린다. 그곳에도 분명히 자신과 같이 비행을 수련하거나 무리에서 쫓겨난 갈매기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나단은 끝끝내 지상으로 내려와 스승이 필요한 갈매기들을 가르치며 사랑을 펼치고자 한다.

그렇게 플레처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낸 조나단은 그들과 함께 다시 갈매기 무리로 돌아가

더 많은 갈매기를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 며칠간 이들의 비행을 목격한 무리의 몇몇 갈매기들이 스스로 추방자를 자처하며 비행을 배우기를 희망하였기에 조나단 무리의 규모는 커져갔고, 어느 날 죽어가던 플레처를 조나단이 되살렸다고 생각한 갈매기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

조나단이 세상을 떠나면서 플레처에게 자신에게 엉뚱한 소문이나 신화가 생기는 것을 막으라고 하지만 갈매기들은 조나단을 향해 신에 가까운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 이제 조나단을 믿고 비행을 배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갈매기들은 비행과 수련을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조나단을 받들기만 하며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이것이 조나단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숭고한 일이라고 포장하지만, 수행의 고충을 겪을 의지는 전혀 없는 기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맹신이 그 본질을 흐린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무리의 행동에 의문점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앤서니가 등장했고, 그 앞에 조나단이 나타나며 이야기는 끝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족 형제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찰흙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며 지상에 생명체를 탄생시키라고 하였다. 하지만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따뜻한 가죽과 털, 재빠른 날개, 매끄러운 지느러미 같은 능력들을 모두 자신이 만든 동물들에게 나누어줘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들에게 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만든 신과 닮은 인간들에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두 손이 자유로워진 인류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그렇지만 날지 못하는 인류는 하늘과 같은 높은 곳을 끊임 없이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급 사회나 계단, 거대한 건축물 등도 생겨났으며, 현재에도 하늘 그 이상의 우주까지 손을 뻗고 있다.

하지만 날개가 없다고 날지 못하는 것일까?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 책을 ‘모든 이의 내면에 깃든 진정한 갈매기 조나단’에게 바친다고 하였다. 조나단

이 원하고 그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비행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마음속의 조나단을 깨우고 충실한 도전 정신과 한계를 없애는 열정, 소중한 삶의 목표와 꿈,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높고 넓은 하늘을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등이 아픈 것은 날개가 돋기 위함이라는 말처럼 노력 뒤에 돌아난 날개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값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늘부터 나는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시민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를 읽고

양산중앙중학교 3학년 박서연

이기주의. 아마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기주의가 일정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남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단순한 생각이다.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 사회에서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조건적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포함된 사회의 파멸을 불러일으킨다.

책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가 다루고 있는 17개의 사회 문제들 대부분 크고 작은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기주의, 동식물 또는 환경에 관련된 이기주의, 피부색에 관련된 이기주의, 부에 관련된 이기주의 등 이기주의는 우리 일상에 다양한 면에서 나타난다. 대체 이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인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기주의에 부딪혀 왔다. 이기주의가 낳은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차별’이다. 책을 읽으며 알게 된 여러 놀라운 사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바로 ‘인간 사파리’였다. 동물원도 동물의 권리를 따져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요즘을 사는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극악의 비인간적인 여행 코스였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대놓고 알몸을 쳐다보고 음식을 준다는 명분으로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말인가? 이것도 결국엔 차별, 즉 이기주의인 것이다.

수 세기 동안 문명과 접촉해오지 않던 자라와 족의 인권보다 자사의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여행사들과 그 여행을 즐겼던 관광객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비극이기 때문이다. 설마 현재에도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나 싶어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아직 완벽히 사라진 여행 문화는 아닌 것 같았다. 그 부족의 삶은 집단의 이기주의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런 여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문화임을 안다고 해서 감히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다. 오늘 당신의 이기주의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과연 얼마나 올렸을까? 6월 초, 벌써 에어컨을 켜는 당신의 행동이, 그대가 아무렇게나 쓰고 버린 물건들이, 우리가 마신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담은 플라스틱 컵이 이 순간에도 지구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신도 알 것이다.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이 지구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러나 또 생각할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은 정말 사소해서 큰 영향이 아닐 거라고.

사실은 나도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 또한 나도 모르는 나의 이기주의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지구의 희생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전등을 켜놓았으며, 30분이나 샤워를 했고, 플라스틱 용기에 싸인 배달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

사실 나는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론적인 면만 배웠지 실제로 그것이 내 일상에서 직접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런 나에게 공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작년 여름의 장마였다. 처음에는 지난 여러 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작년의 장마는 엄청난 폭우가 강물을 불려서 다리를 부술 정도였으니 말이다. 뉴스에서 장마로 집을 잃은 사람들까지 속출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나는 그제야 내가 사는 지구가 큰 위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 우리의 이기주의에 있음을 이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이기주의로 파괴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실 물과 공기를 점점 줄이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기주의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가 늘어나 우리는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 모순적인 것은 인간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미래는 점점 퇴화해 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대로 살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효력이 있다.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자. 나를 지키는 선에서만 내 이익을 도모할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이기주의로 세우고 모두의 이익, 인간 사회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아름다운 우주를 위해, 먼 미래 우리의 자손들이 사이 좋게 뛰어놀 건강한 지구를 위해 오늘부터 노력하자.

책에 나오듯이 '지구를 위한 To Do List'를 만드는 것도 좋고, 그냥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오늘 물을 아껴 쓴 것은 대단한 일이구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간 것은 지구를 위한 멋진 일이구나', '커피숍에 텀블러를 챙겨간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어',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다 먹은 것은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겠지?'처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또는 할 노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있는 세계인이 되어있을 것이다.

넓게 보자. 좁은 틀 안에 갇혀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제 '이기주의'가 아닌 '이지기주의(지구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태도)'에 한몫을 담당하게 된 당신을 힘찬 박수로 응원하겠다.



## 필터 버블에 갇힌 미디어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를 읽고

김해대청고등학교 2학년 강다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튜브’, ‘소셜 미디어(SNS)’ 그리고 ‘언론과 뉴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이다. 난 이 책을 통해 대표적인 세 가지 매체들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매체 중 특히나 ‘유튜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 하나이다. 개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적절하게 영상을 추천해 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언제나 나에게 긍정적인 존재였는데, 평소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내 취향에 맞추어 뜨는 영상들을 거부감 없이 수용해왔을 정도로 나는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정보만 골라주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고려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았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면 알고리즘은 미디어 이용자가 필터링 된 정보만을 이용하도록 부추기는데, 이러한 정보 편식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한다.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관심사에 맞춘 한 분야의 정보만을 조달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편협한 사고를 심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책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보다 1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알고리즘은 1권 읽은 책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알고리즘을 더욱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유튜브 중독과 무분별한 정보 전달 및 수용은 판단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난 이 책을 읽고 필터링 없는 알고리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알고리즘의 영향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소셜 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나는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기울였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광고와 게시물이었다. 알고리즘을 통해 나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광고와 게시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정보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인스타그램 역시 ‘유튜브 알고리즘’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의 문제점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스냅챗 이형증’과 ‘열등감 유발’ 등이 있다.

‘스냅챗 이형증’이란 현실 속 자신의 모습과 필터로 보정된 자신의 이미지를 착각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학협회’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냅챗 이형증’을 ‘필터링 된 이미지는 현실과 환상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제거해야 할 결함으로 느끼게끔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의학계에서는 ‘스냅챗 이형증’을 일종의 정신질환이라 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또한, 잘 나온 셀카를 찍기 위해 성형수술을 감행하거나, 셀카와 현실의 다른 모습을 자각하게 될 때 오는 허무감과 자괴감도 확실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과거, 나의 현실과 다르게 멋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던 경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스타그램에서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거나 혹은 꾸며졌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매우 길었을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는 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청소년기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나조차도 타인의 삶을 보며 열등감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확한 사고를 하기 어려운 어린이

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막을 순 없다. 고로 난 우리의 사고 전환과 현실 직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언론과 뉴스’의 문제점을 탐구해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언론과 뉴스’의 문제점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깝게 존재하고 있다. 언론사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뉴스가 될 만한 정보를 선택하고 중요도에 따라 뉴스를 배치하는 ‘게이트키퍼’와 언론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특정한 방향과 논의의 틀을 제공해 여론을 조성하는 ‘어젠더 세팅’은 언론과 뉴스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다방면으로 분산되었다고 해도, 언론과 뉴스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게이트키퍼’와 ‘어젠더 세팅’ 그 자체를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기능이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기능으로 악용하기 위해, 혹은 특정 사건을 덮기 위해 언론과 뉴스의 기능을 부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다. 거짓된 사실을 진실처럼 전하는 ‘가짜뉴스’는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인해 조작되어 퍼지는데, 그 중 정치적인 목적의 경우 지지 세력에 유리하거나 반대 세력에 불리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가짜뉴스’는 처벌의 미약성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가짜뉴스를

유포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나타나듯이 연예인과 관련된, 일명 '~카더라'같은 경우는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나는 '가짜뉴스' 문제를 언론과 뉴스로 한정 지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과 뉴스'는 물론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문제까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필터 버블'

에 갇혀 정보를 편식하지 않는, 타인의 일부분을 보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때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해 확실하게 규제하는 등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흘러보낼 수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봄으로써, 다양한 매체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은 허점 투성이지만, 언젠가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매체가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할아버지의 달콤한 유산’을 읽고

칠원고등학교 2학년 조유빈

이 책은 읽기 전부터 내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제목에서 드러난 할아버지가 남긴 작지만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런 궁금증을 안고 읽은 책은 내 눈앞에 중국의 풍경을 펼쳐주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지명, 여러 중국 문화들이 나오면서 중국을 연상케 했다. 이제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다.

우선 첫 번째는 등장인물이다. 여기에는 꽤 많은 등장인물이 있다.

나는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각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 걱정에 예민해진 아빠와 직업도 없이 빈둥대면서 빈랑을 씹는 큰아버지, 필터없이 말을 내뱉는 사촌 누나,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사촌 형, 고집불통인 데다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자린고비 할머니,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결함들이 부딪혀 유발되는 갈등은 이 가족의 일상이었다. 후반까지 가도 꼬인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으나 가면 갈수록 하나둘 변해가는 관계를 보며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모두 각자의 결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여러 결함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이고, 갖은 갈등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 나오는 민원의 가족들처럼 관계를 풀어나가면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가진 결함들을 장점으로 바꿔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보면 어떨까? 등장인물들의 결함을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아빠와 힘든 상황에도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큰아버지, 자기 생각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사촌 누나,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촌 형, 어떤 것이든지 소중함을 알고 아끼려는 할머니로 바꿔보듯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층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치매에 대한 내용이다.

이 책에서 치매는 할아버지가 앓고 있는 병이며, 할아버지의 형인 큰할아버지가 걸린 병이기도 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점은 치매에 대한 민원의 대처법이다. 민원을 제외한 다른 어른

들은 치매에 걸려 어린 시절로 돌아간 할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며 계속 현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누구 라면서 알아보기를 애원하기도 하고 자신이 알던 원래 할아버지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그러다 지쳐 어린 시절의 할 아버지를 외면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이 꼭 할아버지에게 기억을 강요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그들이 기억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어서 당황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할 아버지의 모습이 나올 때면 기억이 참 소중하면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고 구성하면서 여러 사람의 추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이 한 순간에 한 부분이 속 빠져버린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다.

하지만 민원은 달랐다. 민원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할아버지에게 맞춰주며 할아버지는 도라에몽처럼 시공을 넘나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민원이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민원의 행동 속에서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원의 행동 은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한 곳에서 눈을 떴을 또 한 명의 어린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책의 시선에 대해서이다. 이 책은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이야기

가 전개된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책이 더 재밌 어지고 색달라지는 조미료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민원이 치매를 바라보는 눈은 어느 어른들과는 달랐고, 할아버지의 약 대신으로 초콜릿을 떠올린 것이나,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이 봤던 책 내용을 떠올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면 민원은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말을 내뱉기도 한다. 그런 모습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기도 했다. 어린아이들의 말들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전하고 자신의 감정에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비록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보인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에 웃으면서 떠났 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별을 미래 에 앞두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서로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고 상대방에게 전하고픈 자기 생각을 묵혀 두는 건 너무 부질없는 것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힘든 관계를 잘 이겨내고 자기 생각을 속 시원히 얘기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일반

경상남도교육감상 | 일반 대상 |

052 시의 의미와 고독의 힘  
통영시 서연숙



## 시의 의미와 고독의 힘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읽고

서연숙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과연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빛을 내고 어떤 풍경을 하고 있을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소설의 배경이 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에는 가 본 적도 호기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나무들이 어찌나 무성한지 햇살도 아지랑이처럼 흐릿하게 걸려 탐스럽게 핀 연령초와 흰 바이올렛꽃 무덤을 비추었다.’와 같이 작가가 섬세하게 묘사하는 문장들을 바탕으로 그곳에 대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카야는 다섯 아이 중 막내였다. 아빠는 전쟁에 참전하여 왼쪽 허벅다리엔 파편을 맞고 난 후 폐인으로 전락했고 주폭에 시달리던 엄마는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다. 언니 오빠들도 하나둘 떠나고 난 후 한 번씩 자취를 감추다가 돌아오곤 했던 아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영 떠나버렸다. 습지에 고립된 글도 모르는 6살 어린 여자아이 카야,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아이는 바람에 날린 소리가 섞이면 인기척을 찾아 귀를 기울였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했지만 결국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외로움을 아는 것은 달뿐이라 느끼는 아이는 언어가 없는 야생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습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카야는 ‘늪쓰레기, 습지 암탐, 늪시궁쥐’로 불리기 일쑤였고 ‘마시 걸, 늪대의 아이’로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무엇에 의해서이건 ‘고립’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외로움’을 동반한다.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당한 외로운 카야에게 친절로 다가온 건 세상의 또 다른 차별과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흑인 점핑과 메이블 그리고 테이트뿐이었다. 그래도 그들이 있어 다행이었다.

소설에서 홀로 성장해가는 카야만큼이나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테이트였다. 그는 체이스와 달리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체이스는 카야를 이용했다가 결국 카야의 손에 최후를 맞는다. 하지만 테이트는 카야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책을 전해 주며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선사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찾아 떠났고 결국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용서를 구했다. 야생의 카야가 가진

학술적 지식과 심미적 능력을 알아보고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 그녀가 세상에 한 발짝 나올 수 있게 하였다. 세상에 드글거리는 ‘체이스들’ 속에서 따뜻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유일한 존재인 테이트는 참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시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다. 바로 스커피. 새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과 만나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햄버거를 준비해 먹는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시를 읊으며 인생을 가르쳐 준다. 진짜 남자란 부끄러움 없이 울고 심장으로 시를 읽고 영혼으로 오페라를 느끼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라고. 그리고 시의 존재 의미는 사람한테 뭔가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나는 소설 중 이 장면이 가장 좋았다. 그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 것은 곧 시였다. 카야 또한 이후 끊임 없이 시를 쓴다.

이 소설은 야생에서의 고독이 한 인간을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 안에서 카야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생존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웠다. 카야는 긴 시간 동안 온몸으로 외로움과 두려움, 고독을 느꼈으나 온몸으로 견뎠고 자랐다. 테이트의 말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연이 그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보호해 준 것이다. 소설의 끝에서 알았다. 카야의 어머

니인 습지가 그런 그녀를 돕고 감춰주고 품어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범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지만 결국 그녀였다. 시간이 흐르고 카야는 ‘나를 지켜준 당신을 이제는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가 습지를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어 이곳이 매워지지 않도록 영구히 지켜낼 때, 체이스를 망루에서 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와는 다른 쾌감과 감동이 밀려들었다.

한편 ‘저 애들은 깔깔 웃고, 나는 농게처럼 구멍을 파고 숨고’라는 문장에서 내가 외면했던 곁에 있는 수많은 농게들이 떠올랐다. 테이트를 동경하면서 나 또한 체이스였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진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 카야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결핍과 지독한 고독을 품어준 것은 자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은 결국 사람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었다.

내가 느낀 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는 자연과 인간과 고독과 사랑이 있었다. 그 틈에는 늘 시가 함께였고. 카야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리라. 나 역시 그들처럼 자연에서 시의 의미를 찾아 무언가 느끼고, 고독에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고 싶다.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 경상남도교육감상 | 초등 대상 |

- 058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삼성초등학교 1학년 조하은
- 059 나 탐구 생활  
남양초등학교 4학년 김민경

## 경상남도교육감상 | 초등 최우수 |

- |  |                                    |
|--|------------------------------------|
| 060 호랭이를 왜 노루가 밟았을까?<br>신안초등학교 1학년 이지아 | 064 미디어의 혁명<br>남양초등학교 5학년 김세은      |
| 060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br>용호초등학교 2학년 김가은   | 065 환경 나무<br>금성초등학교 5학년 김시은        |
| 061 사계절의 빛<br>제산초등학교 2학년 박소윤           | 065 민서와 루킹<br>정동초등학교 5학년 유승연       |
| 061 나는 씩씩해<br>월성초등학교 2학년 정준현           | 066 우리가 만드는 단톡방<br>용호초등학교 5학년 조승현  |
| 062 밤의 음악회<br>반송초등학교 3학년 박시윤           | 066 생명을 살리는 칭찬 말<br>하동초등학교 6학년 김민지 |
| 062 너구리 너 큰일났다!<br>울하초등학교 3학년 안정연      | 067 사이버 불링<br>대우초등학교 6학년 남윤채       |
| 063 걱정 커튼<br>호암초등학교 3학년 어수아            | 067 맛있는 라면의 반전<br>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정빈   |
| 063 걱정을 세탁해 드립니다!<br>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이준서   | 068 나의 독서이야기<br>수남초등학교 6학년 심서연     |
| 064 건강한 밥상<br>배영초등학교 3학년 조승아           | 068 우리의 소중한 지구<br>남해초등학교 6학년 장서연   |

초등  
저학년  
대상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선정도서 「큰일났다」  
삼성초등학교 1학년 조하은



초등  
고학년  
대상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 나 탐구 생활

선정도서 「진짜 내 소원」  
남양초등학교 4학년 김민경



글  
부문

그림  
부문

영상  
부문

초등  
최우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호랑이를 왜 노루가 밟았을까?

선정도서 「큰일났다」  
신안초등학교 1학년 이지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

선정도서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용호초등학교 2학년 김가은



초등  
최우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글  
부분  
그림  
부분  
영상  
부분

### 사계절의 빛

선정도서 「밤의 교실」  
제산초등학교 2학년 박소윤



### 나는 쭉쭉해

선정도서 「이까짓 거」  
월성초등학교 2학년 정준현



초등  
최우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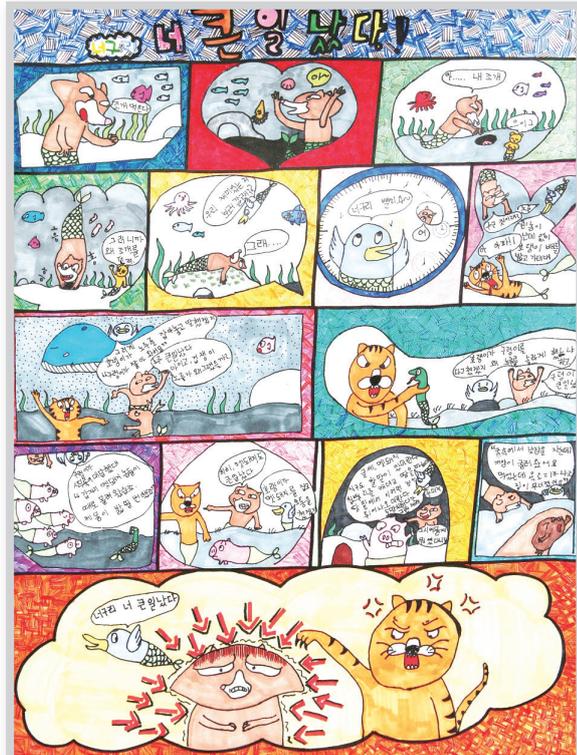
밤의 음악회

선정도서 「밤의 교실」  
반송초등학교 3학년 박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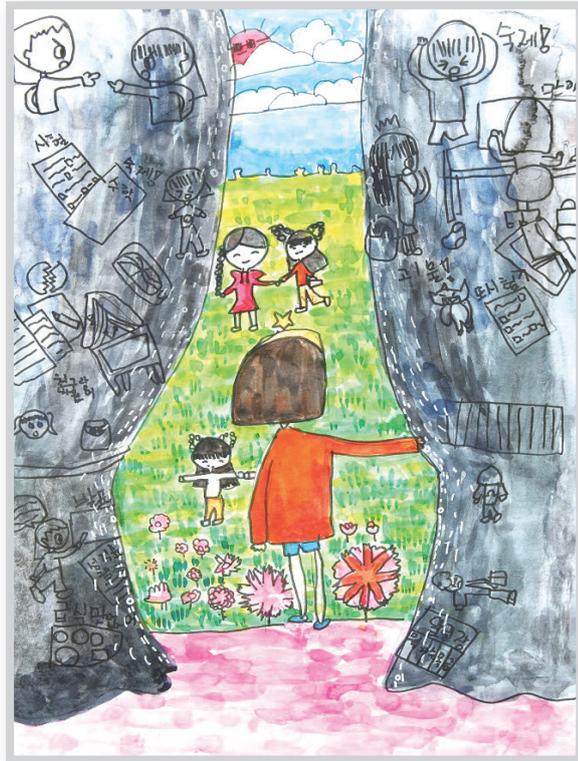
너구리 너 큰일났다!

선정도서 「큰일났다」  
울하초등학교 3학년 안정연



걱정 커튼

선정도서 「걱정 세탁소」  
호암초등학교 3학년 어수아



글  
부분

그림  
부분

영상  
부분



걱정을 세탁해 드립니다!

선정도서 「걱정 세탁소」  
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이준서



초등  
최우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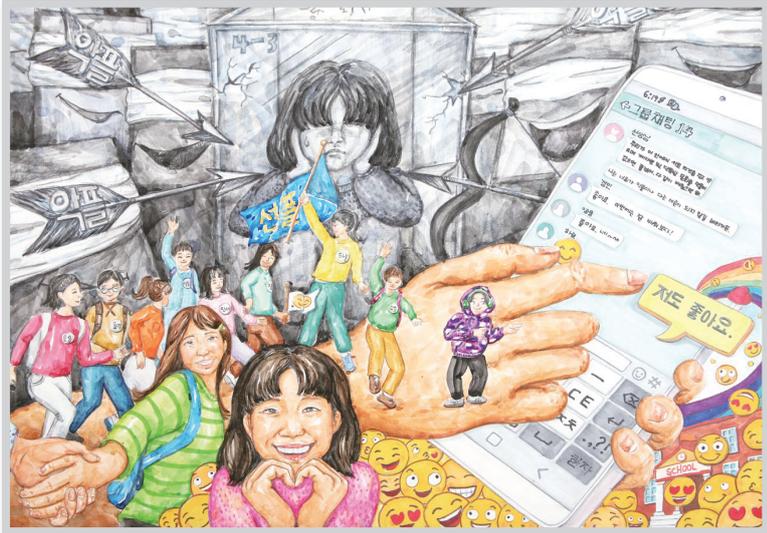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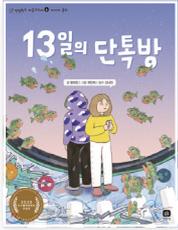


건강한 밥상

선정도서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배영초등학교 3학년 조승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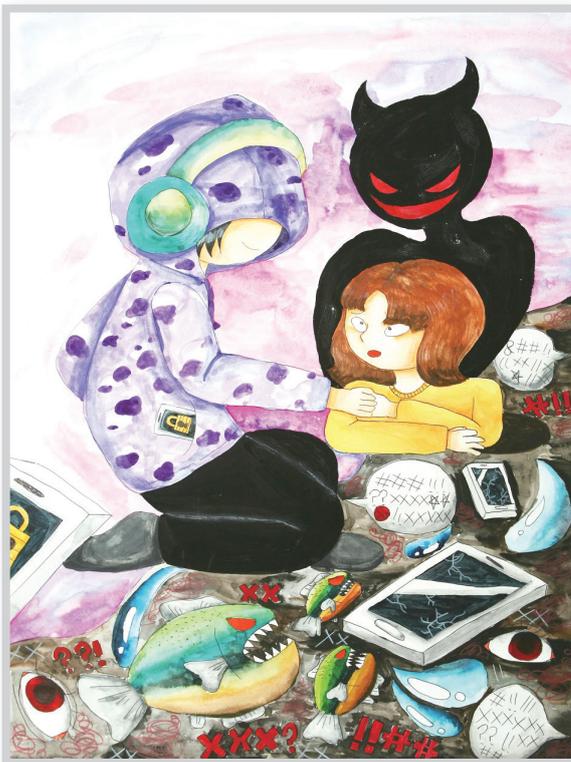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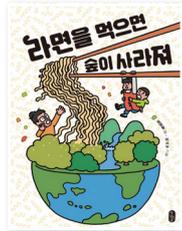


미디어의 혁명  
선정도서 「13일의 단톡방」  
남양초등학교 5학년 김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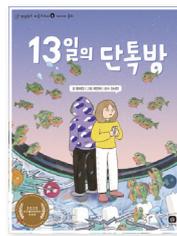
### 환경 나무

선정도서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금성초등학교 5학년 김시은



### 민서와 루킹

선정도서 「13일의 단톡방」  
정동초등학교 5학년 유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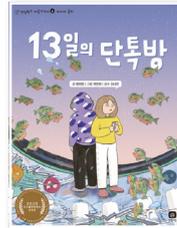
초등  
최우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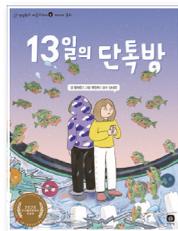
### 우리가 만드는 단톡방

선정도서 「13일의 단톡방」  
용호초등학교 5학년 조승현



### 생명을 살리는 칭찬 말

선정도서 「13일의 단톡방」  
하동초등학교 6학년 김민지



초등  
최우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감상」

글  
부분  
그림  
부분  
영상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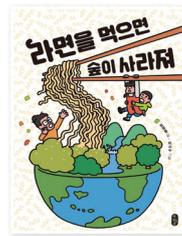
사이버 불링

선정도서 「13일의 단독방」  
대우초등학교 6학년 남윤채



맛있는 라면의 반전

선정도서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정빈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 청소년 대상 |

070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도산중학교 3학년 김연수

경상남도교육감상 | 청소년 최우수 |

071      빅데이터로 보는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거제중앙중학교 1학년 홍예슬

071      독고슴에게 말걸면  
            사파중학교 3학년 박지민

072      소년과 소년과 소년과 소년  
            호암중학교 3학년 진민경

072      나의 엄마들과  
            범어고등학교 2학년 오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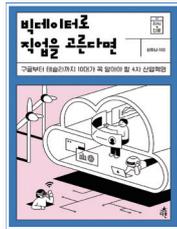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선정도서 「독고솜에게 반하면」  
도산중학교 3학년 김연수



빅데이터로 보는  
우리의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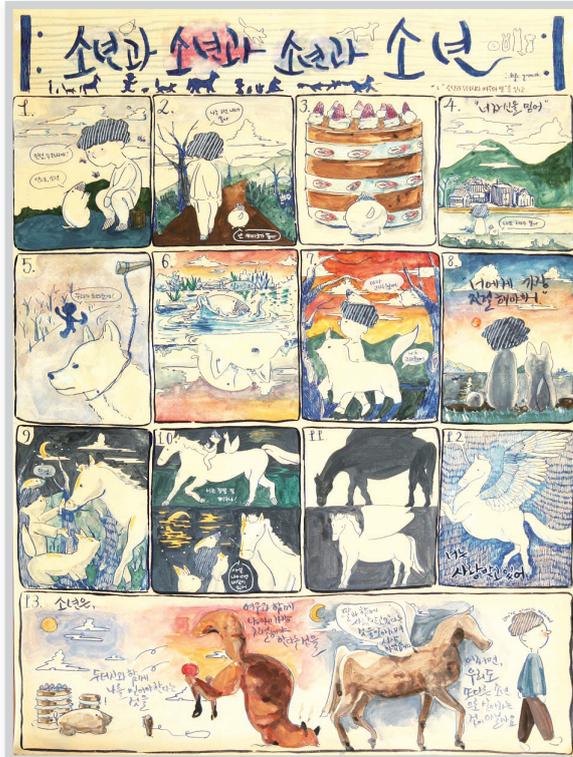
선정도서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거제중앙중학교 1학년 홍예슬



독고슴에게 말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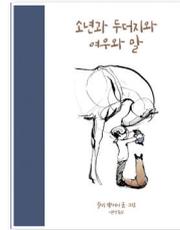
선정도서 「독고슴에게 반하면」  
사파중학교 3학년 박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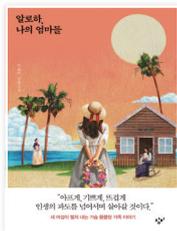


소년과 소년과 소년과 소년

선정도서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호암중학교 3학년 진민경



나의 엄마들과  
선정도서 「알로하, 나의 엄마들」  
범어고등학교 2학년 오수빈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 | 초등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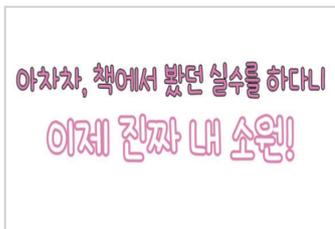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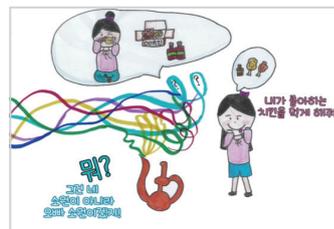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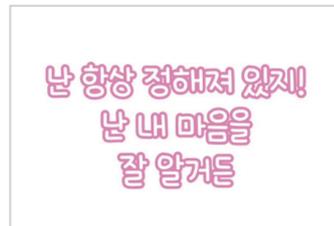
076      진짜내 마음 알기  
수남초등학교 4학년 윤채민

**경상남도교육감상 | 초등 최우수 |**

077      수길의 의병이 되기 위한 각개 전투  
초전초등학교 6학년 천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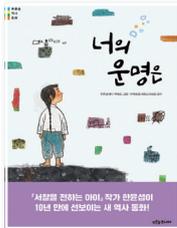
### 진짜 내 마음 알기

선정도서 「진짜 내 소원」  
수남초등학교 4학년 윤채민



## 수길의 의병이 되기 위한 각개 전투

선정도서 「너의 운명은」  
초전초등학교 6학년 천은수



2021년 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 청소년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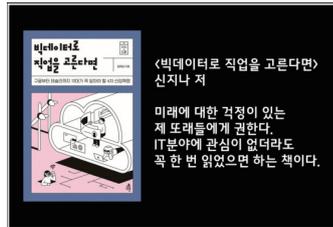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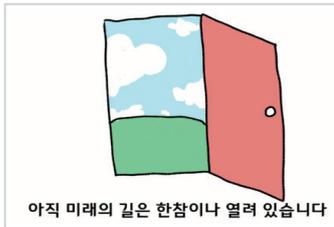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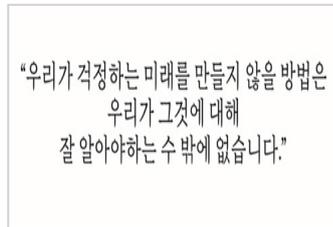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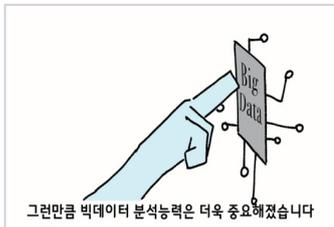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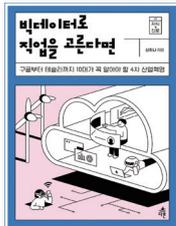
080 미래의 주인은 우리  
대곡중학교 1학년 장희운

**경상남도교육감상 | 청소년 최우수 |**

081 멈추지 않는 도전  
수월중학교 3학년 유현준, 이진성, 이철민, 임승현

## 미래의 주인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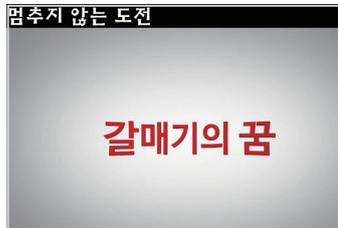
선정도서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대곡중학교 1학년 장희운



## 멈추지 않는 도전

선정도서 「갈매기의 꿈」

수월중학교 3학년 유현준, 이진성, 이철민, 임승현



나는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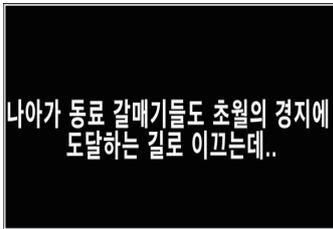
다른 갈매기들은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날지만,



나는 꿈과 행복을 위해 난다

다른 갈매기들로부터 배척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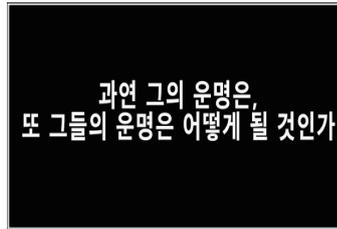
결국 무리에서 추방당하게 된 리빙스턴



끊임없는 자기수련을 통해 완전한 비행을 터득한 리빙스턴

나아가 동료 갈매기들도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로 이끄는데..

동료들의 반복된 실패에도



끊임없이 용기를 심어준 리빙스턴

과연 그의 운명은,  
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2021년(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 독서 공모전

- 공모 부문: 글 부문, 그림 부문, 영상 부문
- 공모 기간: 2021. 7. 1.(목) ~ 9. 30.(목)
- 접수 결과: 총 28,995편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계
글 부문	15,056	1,847	114	17,017
그림 부문	10,837	970		11,807
영상 부문	100	71		171
계	25,993	2,888	114	28,995

- 심사 결과: 551편, 577명
  - 종합상: 58명(산청초등학교 2학년 김수현 등)
  - 지역상: 519명(거제상동초등학교 2학년 이은재 등)
  - 단체상: 10개 기관(호암초등학교 등 9개교, 거제도서관)
  - 지도교사상: 1명(호암초등학교)

### 책 꾸러미 지원

- 운영 기간: 2021. 4. 29.(목) ~ 9. 29.(수)
- 운영 기관: 북상초등학교 등 29개교
- 운영 내용: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책 꾸러미 지원
- 운영 실적: 2,711명



거창덕유중학교



한림중학교



성지여자중학교



칠천초등학교



반동초등학교



삼계초등학교

# 수상작품 전시

- 운영 기간: 2021. 5. 11.(화) ~ 10. 29.(금)
- 운영 기관: 임호중학교 등 65개교(관)
- 운영 내용: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수상작품 순회 전시
- 운영 실적: 23,503명



임호중학교



합천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진전중학교



신안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



서하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구산중학교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울산초등학교



사파중학교



통영초등학교

작가와  
의  
만남

- 운영 기간: 2021. 5. 4.(화) ~ 12. 11.(토)
- 운영 기관: 관봉초등학교 등 24개교(관)
- 운영 내용: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작가와의 만남
- 운영 실적: 1,250명



박현주 관봉초등학교



윤은주 소담초등학교



허진희 수월중학교



최원형 내동초등학교



이서후 밀성고등학교



방미진 의령중학교



구본권 칠원고등학교



허정윤 화양초등학교



이영아 남해중학교



이선미 진해중앙초등학교



최영희 사남초등학교



김진 오봉초등학교



김규아 진례초등학교



박건호 산청지리산도서관



구본권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신지나 봉곡중학교



이지은 삼계초등학교



이금이 대성중학교



이금이 고성중학교



신지나 합천고등학교



고재욱 거제도서관



류재향 전안초등학교



한윤섭 산청초등학교



이금이 창원도서관

## 2021년(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형식·주제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허정윤	한솔수북	그림책(식생활/특산물)
2	말들이 사는 나라	윤여림	위즈덤하우스	그림책(언어습관/자기표현)
3	범 내려온다	김진	아이들판	그림책(옛이야기/판소리)
4	우리 곤충 채집할래요?	이노우에 타케나리	샌더키즈	그림책(자연/생태)
5	이까짓 거!	박현주	이야기꽃	그림책(성장/용기)
6	큰일 났다	김기정	다림	그림책(추리/호기심)
7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천개의바람	그림책(환경/패러디)
8	걱정 세탁소	홍민정	좋은책어린이	동화(불안/성장)
9	욕 좀 하는 이유나	류재향	위즈덤하우스	동화(언어생활/갈등)
10	이불 바다 물고기	황섭균	웅진주니어	동화(상상/상처/공감)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밤의 교실	김규아	샘터사	만화(가족/상실/극복)
2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사계절	비문학(자기정체성/상호존중)
3	진짜 내 소원	이선미	글로연	그림책(자아발견/감정)
4	13일의 단톡방	방미진	상상의집	동화(SNS/사이버폭력/우정)
5	고조를 찾아서	이지은 외	사계절	동화(과학/상상)
6	내가 만만해?	이지호(역음)	어린이시나라	시(어린이시)
7	너의 운명은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동화(역사/의병/성장)
8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최원형	책읽는곰	비문학(환경/공존)
9	씨드	최영희	동아시아사이언스	동화(인공지능/인간성)
10	편의점	이영아	고래벳속	동화(가정폭력/우정)
<b>청소년 (중학생)</b>				
1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문학(고전/성장/꿈)
2	독고슴에게 반하면	허진희	문학동네	문학(관계/소문/선입견)
3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찰리 맥커시	상상의힘	문학(그래픽노블/철학)
4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구본권	북트리거	비문학(인문/미디어)
5	할아버지의 달콤한 유산	평수화	뜨인돌	문학(가족애/치매)
<b>청소년 (고등학생)</b>				
1	법정에 선 수학	레일라 슈넵스 외	아날로그	비문학(수학/인문)
2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신지나	다른	비문학(진로/미래)
3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창비	문학(역사/이민/여성)
4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유희, 윤예림	창비교육	비문학(인문/사회/환경)
5	콜센터 상담원, 주운 씨	박주운	애플북스	문학(에세이/노동/직업)
<b>일반</b>				
1	가재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언스	살림	문학(소설/성장/생태)
2	경남 동네 여행	이서후 외	경남도민일보	비문학(지역/여행)
3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브래디 미카코	다다서재	비문학(사회/차별/다양성)
4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고재욱	웅진지식하우스	문학(에세이/노인/행복)
5	매핑 도스토옙스키	석영중	열린책들	문학(고전/문학기행)
6	사람에 대한 예의	권석천	어크로스	비문학(인문/사회)
7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문학(여성/가족)
8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	문학(에세이/어린이/성찰)
9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	인플루엔셜	문학(에세이/인문/시)
10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	박건호	휴머니스트	비문학(역사/근현대사)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5년(제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평	이오덕	효리원
2	엄마는 거짓말쟁이	김리리	다림
3	심청가	이현순	초방책방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문제아	박기범	창비
2	작은 씨앗이 꾸는 꿈, 숲	이성아	푸른나무
3	(초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알쏭달쏭 직업이야기 51	김한준	을파소
청소년 (중학생)			
1	지붕 낮은 집	임정진	푸른숲
2	나비에 사로잡히다	샤먼 앵트 러셀	북폴리오
3	마사이전사 레마솔라이	조지프 레마솔라이 레쿠톤	황소자리
청소년 (고등학생)			
1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조항범	예담
3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일반			
1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	미쳐야 미친다	정민	푸른역사
3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6년(제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수상한 선물가게	류가미	국민서관
2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파랑새어린이
3	누리야 누리야	양귀자	문공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의 바이올린	수지 모건스턴	주니어김영사
2	내일을 빼앗지 말아요	도미니크 디메이	크레용하우스
3	어린이를 위한 선물	스펜서 존슨	랜덤하우스중앙
청소년 (중학생)			
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민음사
2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아이들
3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천국에서의 하루	권대응	홍익출판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21세기북스
일반			
1	야생초 편지	황대권	도솔
2	행복에 이르는 길	폴던 J. 신	해누리
3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청목
4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김영사
5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야마자키 후미오	상상미디어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7년(제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똥장군	김정희	한림
2	도깨비 아버지	이상배	국민서관
3	일기도서관	박효미	사계절
4	전학 간 윤주 전학 온 윤주	장주식	문학동네
5	무너미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이오덕	한길사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나 좀 내버려둬	박현진	천둥거인
2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	북뱅크
3	빌리 엘리엇	벨민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4	살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시공주니어
5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작과비평사
<b>청소년 (중학생)</b>			
1	가자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낭기열라
2	곰보빵	이철환	꽃삼
3	주머니속의 고래	이금이	푸른책들
<b>청소년 (고등학생)</b>			
1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푸른숲
2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청림
<b>일반</b>			
1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	손혜주 외	사이언스북스
2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3	별처럼 태어났으니 눈부시게 사랑하라	정연	고니
4	천개의 공감	김형경	한겨레출판
5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위즈덤하우스
6	행복한 사람 타사튜더	타사 튜더	월북
7	호미	박완서	열림원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8년(제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황소와 도깨비	이상	다림
2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웅진씽크빅
3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이태수	우리교육
4	바나나 필통속의 공쥐	이미애	행복한아이들
5	꿀찌가 받은 상	김용인	영림카디널
6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창비
7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	윤문영	계수나무
8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아이세움
9	금순아, 노을자	이상권	창비
10	아름다운 꿀찌	이철환	주니어랜덤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폴코스 침묵화여행	인병선	현암사
2	엄마의 마지막 선물	문선이	파랑새
3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김려령	문학동네
4	천년의 사랑 직지	조경희	대교출판
5	우리 다시 만날 때	송재찬	계수나무
6	나는 무슨 씨앗일까	박효남	샘터사
7	하늘을 나는 교실	에리히 케스트너	시공사
8	명혜	김소연	창비
9	가짜 한의사 외삼촌	최미선	문원
10	다산의 아버님께	안소영	보림
<b>청소년 (중학생)</b>			
1	나무의 죽음	차윤정	웅진지식하우스
2	하늘이 낸 성인을 꿈꾸던 공자 vs 저절로 참 스승이 된 노자	권순이	숨비소리
3	펼떡이는 길거리 경제학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4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하폐 케르켈링	은행나무
5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b>청소년 (고등학생)</b>			
1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2	우리들의 스캔들	이현	창비
3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4	내인생의 스프링캠프	정유정	비룡소
5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b>일반</b>			
1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2	비형량의 낮과 밤	김인배	문학세계
3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푸른숲
4	철학! 영화를 casting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5	한국의 고집쟁이들	박종인	나무생각
6	바리데기	황석영	창비
7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이오덕	청년사
8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9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	이혜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얼 고틀립	문학동네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9년(제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친구 도서관	김하늬	한겨레아이들
2	도둑님 발자국	황선미	베들북
3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푸른숲주니어
4	선생님은 모르는게 너무 많아	강무홍	사계절
5	책 읽는 허수아비	마크 김볼 물튼	예꿈
6	은비네 시골일기	고정옥	진선북스
7	너 나 우리	선안나	샘터사
8	멋진 여우씨	로알드 달	논장
9	나는 떠돌이 개야	이상교	시공주니어
10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어린이
2	랑랑별 때때롱	권정생	보리
3	책읽는 도깨비	이상배	처음주니어
4	나는 진짜 나일까	최유정	푸른책들
5	귀신 고래	김일광	내인생의책
6	우리집 우렁이 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7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현길언	계수나무
8	마르코 폴로의 모험	러셀 프리드먼	두레아이들
9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앨 고어	주니어중앙
10	준비됐지?	김옥	창비
<b>청소년 (중학생)</b>			
1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2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오바마 이야기	헤더 레어 와그너	명진출판사
3	스프링벅	배유안	창비
4	나의 권리를 말한다	전대원	뜨인돌
5	꽃피는 고래	김형경	창비
<b>청소년 (고등학생)</b>			
1	이 일기는 읽지 마세요, 선생님	마가렛 피터슨 해덱스	우리교육
2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문예출판사
3	젊음의 탄생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4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
5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박종인 외	시공사
<b>일반</b>			
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살림
3	듀이: 세상을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비키 마이런	갤리온
4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5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6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7	내려가는 연습	유영만	위즈덤하우스
8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구중서	책만드는집
9	습지와 인간	김현주	산지니
10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이충렬	김영사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0년(제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대머리 사막	박경진	미세기
2	이르기 대장 1학년 나최고	조성자	아이앤북
3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김현태	아이앤북
4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고래이야기
5	큰 고추 작은 고추	하이타니	양철북
6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엘렌사빈	문학동네
7	알몸으로 학교 간 날	타이마르크 르탄	아름다운 사람들
8	베컴머리 힙합 선생님	노혜영	교학사
9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송윤섭	주니어김영사
10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이금이	보물창고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숨쉬는 책 무익조	김성범	문학동네
2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최은영	우리교육
3	어진이의 농장 일기	신혜원	창작과비평사
4	지구를 지키는 가족	김바다	한림출판사
5	멋지다 우리역사	강명관	주니어김영사
6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디자인 하우스
7	맑은 날엔 도서관에 가자	미도리카와 세이지	책과콩나무
8	책 읽어주는 바둑이	이상배	처음주니어
9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창비
10	똥 치우는 아이	김문주	예림당
<b>청소년 (중학생)</b>			
1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브라이언 밀러	서해문집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3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	러셀 프리드먼	비룡소
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미래M&B
5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b>청소년 (고등학생)</b>			
1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2	살아 있음이 행복해지는 희망 편지	김선규 외	랜덤하우스코리아
3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아	푸른숲
4	시골 똥 서울 똥	안철환	들녘
5	오늘 아침,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클레지오	파랑새
<b>일반</b>			
1	재미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2	공무도하	김훈	문학동네
3	햇살 한 줌 향기 한 줌	정목일	문학수첩
4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언	웅진지식하우스
5	풀밭 위의 식사	전경린	문학동네
6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문이당
7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수이치	21세기북스
8	덕혜옹주	권비영	다산책방
9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신의진	걷는나무
1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쌤앤파커스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1년(제7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내 친구 조이	표지율	대교출판
2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번	뜨인돌
3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보림
4	책임어주는 로봇	이영득	보림
5	스티커 토끼	가브리엘라 케셀만	책속물고기
6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배유안	파란자전거
7	강치야 독도강치야	주강현	한겨레아이들
8	쫓드기쌈 쫓드기 쌈	최종득	문학동네
9	헨젤과 그레텔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	고자현	동아사이언스
10	내 친구는 얼굴색이 달라요	콜레트 엘링스	시공주니어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당산할매와 나	윤구병	휴먼어린이
2	어느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레베카 스테드	찰리북
3	사계	마르코 심사	우리교육
4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
5	붕주르 뚜르	한윤섭	문학동네
6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정원각 외	상수리
7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파란자전거
8	나의 어설픈 영웅 안톤	제임스 말로니	책그릇
9	피타고라스 구출작전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10	엄마의 슬픈날	시린 호마이어	문학동네
<b>청소년 (중학생)</b>			
1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문학동네
2	통세계사	김상훈	다산북스
3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살림
4	판타스틱 걸	김혜정	비룡소
5	길은 학교다	이보라	한겨레출판
<b>청소년 (고등학생)</b>			
1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뿌리와이파리
2	가족 표류기	M.H. 헬롱	양철북
3	맹자	장현근	한길사
4	가족입니다	김해원	바람의아이들
5	소피의 세계	요스타인 가아더	현암사
<b>일반</b>			
1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문학동네
2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현대문학
3	서재 결혼 시키기	앤 패디먼	지호
4	크로스	정재승 & 진중권	웅진지식하우스
5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연암서가
6	아름다운은 힘이 세다	페이로 페루치	웅진지식하우스
7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랜덤하우스
8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 열전	이윤기	민음사
9	3분 고전	박재희	작은씨앗
10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심리학	이소라	그리고책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2년(제8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무릎팍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한올림어린이
2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3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4	책 쓰는 날	이영서	학교재
5	(이이화 역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발효이야기	이이화	파랑새
6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	황선미	시공주니어
7	빨강연필	신수현	비룡소
8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산하
9	마틸드는 쓰레기 박사	소피세레	크레용하우스
10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정유소영	창비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기묘한 DNA 도서관	하바 아라시	복스마니아
2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바람의아이들
3	붕구붕구 붕규야	김문주	예림당
4	소나기 밥 공주	이은정	창비
5	열세 번째 아이	이은용	문학동네
6	완벽한 가족	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	다림
7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우리 그림이 들려주는 사람이야기	박영대	현암사
9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이해숙	책과함께어린이
10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주니어김영사
<b>청소년 (중학생)</b>			
1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명진출판사
2	가시고백	김려령	비룡소
3	검은 개들의 왕	마운제	문학동네
4	핸드폰이 사라졌다	웬디 하머	개암나무
5	방주로 오세요	구병모	문학과지성사
<b>청소년 (고등학생)</b>			
1	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	에릭 솔로서	모멘토
2	괜찮아, 열일곱 살	이나미	이랑
3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4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5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학교재
<b>일반</b>			
1	독서천재가 된 흥대리	이지성, 정희일	다산라이프
2	안철수의 서재	이채운	푸른영토
3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4	다 그림이다	손철주, 이주은	이봄
5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다	강풀 외	한겨레출판사
6	두근 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7	흑산	김훈	학교재
8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스님	쌤앤파커스
10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예담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3년(제9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경회루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햇살과나무꾼	비룡소
2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비룡소
3	맛있는 짜장면의 역사	박남정	산하
4	까만 아기양	엘리자베스 쇼	푸른그림책
5	엄마 사용법	김성진	창비
6	옆집 아이는 로봇	한주형	책과콩나무
7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이야기	한영식	아이세움
8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책읽는곰
9	착한아이 사탕이	강밀아	글로연
10	천개의 바람 천개의 첼로	이세 히데코	천개의바람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굳게 다짐합니다	조경숙	국민서관
2	귓속말 금지구역	김선희	살림어린이
3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정창권	사계절
4	날씨 전쟁	토니 브래드먼	사파리
5	섬마을 스캔들	김연진	살림어린이
6	속담 속에 숨은 수학(단위와 측정)	송은영	봄나무
7	시간 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8	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9	왜 우리는 친구일까?	박성철	서교
10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울렸을까	석혜원	풀빛
<b>청소년 (중학생)</b>			
1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외	꿈결
2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창비
3	열혈 수탐 분투기	창신강	푸른숲
4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5	식탁위의 세계사	이영숙	창비
<b>청소년 (고등학생)</b>			
1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고정욱	애플박스
2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웅진지식하우스
3	박철범의 공부특강	박철범	복스토리
4	수상한 화가들	박석근	사계절
5	살아있는 귀신	서른	창비
<b>일반</b>			
1	꾸삐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오래된미래
2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3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정호승	비채
4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하타사와 세이고	다른
5	문명의 배꼽, 그리스	박경철	리더스북
6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7	삶을 바꾼 만남	정민	문학동네
8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9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
10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4년(제10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꼬마 사서 두보	양연주	키다리
2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 맥키삭	고래이야기
3	내 뺨스	박종채	키다리
4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	정란희	키다리
5	맑은 하늘 이제 그만	이육재	노란돼지
6	멋대로 맘대로 월로	데니즈 브레넌 벨슨 외	찰리북
7	미술관의 초대	수전 베르데	문학동네
8	발레하는 할아버지	신원미	머스트비
9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림	실천문학사
10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린다 그리바	아름다운 사람들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한영미	살림어린이
2	게임 파티	최은영	시공주니어
3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살림어린이
4	나는 바람이다 1-2	김남중	비룡소
5	나는 투명인간이다	박성철	아이앤북
6	말이 통하는 아이	노여심	주니어김영사
7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햇핑크돌핀스	두레아이들
8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흥식	파란자전거
9	우리 집 쓰레기통 좀 말려줘	태미라	스콜라
10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오진희	웃는돌고래
<b>청소년 (중학생)</b>			
1	남쪽 섬 티오	이케자와 사쓰키	미래인
2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박지혜	뜨인돌
3	십대를 위한 직업 백과	이랑	꿈결
4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돌
5	휴대폰 전쟁	로이스 페터슨	푸른숲주니어
<b>청소년 (고등학생)</b>			
1	벙커	추정경	놀
2	여덟 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3	열여덟 소울	김선희	살림
4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돌베개
5	지구가 빨났다	남중영	꿈결
<b>일반</b>			
1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3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최은희	낮은산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5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홍익출판
6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한겨레출판
7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난다
8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박영신	정신세계사
9	인생수업	법륜	휴먼어린이
10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5년(제1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5대 가족	고은, 이억배	바우솔
2	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	이하은	파란자전거
3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강정연	라임
4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창비
5	슈퍼 거북	유설화	책읽는곰
6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핏, 게리 루빈스타인	두레아이들
7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8	텔레비전을 끌 거야!	제임스 프로이모스	두레아이들
9	플라스틱 섬	이명애	SANG
10	햄스터 마스크	우쓰기 미호	책읽는곰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갈색 아침	프랑크 파블로프	휴먼어린이
2	빵 터지는 빵집	원유순	크레용하우스
3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유영선	북멘토
4	악당의 무게	이현	휴먼어린이
5	앵그리맨	그로 달레	내인생의책
6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임지윤	창비
7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비룡소
8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사계절
9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	패니 브리트	책과콩나무
10	초등생을 위한 환경특강	윤해윤	나무처럼
<b>청소년 (중학생)</b>			
1	김치도 콩치도 아닌 정치	임정은	다른
2	내 이름은 옴비	옴비 토나	이후
3	모두 짝언	김중미	창비
4	생명의 릴레이	가마타 미노루	양철북
5	우리 친구 맞아?	이남석	창비
<b>청소년 (고등학생)</b>			
1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2	델 문도	최상희	사계절
3	수상한 북클럽	박현희	문학동네
4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5	어쩐지 근사한 나를 발견하는 51가지 방법	공혜진	중앙북스
<b>일반</b>			
1	1그램의 용기	한비아	푸른숲
2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문학동네
3	단속사회	엄기호	창비
4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윤신영	MID
5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6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	시공아트
7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소나무
8	자스민, 어디로 가니?	김병중	열림원
9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메디치
10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6년(제1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거북이박스
2	나부댕이!	제니 오피	봄나무
3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허가람	웅진주니어
4	마음을 배달해 드립니다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	멧돼지가 쿵쿵 호박이 동동	김애란	창비
6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고래이야기
7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사계절
8	소원을 말해 봐	김소연	비룡소
9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10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주니어김영사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2등을 위하여	실비아 태케마	아름다운 사람들
2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어린이작가정신
3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문학동네어린이
4	빨간 자전거	주드 이사벨라	머스트비
5	아빠, 소 되다	핼리 혜성	한림출판사
6	얘들아, 왜 지구가 아프지 아니?	안드레아스 슐롬베르거	토토북
7	엄마는 학교 매니저	안미란	주니어김영사
8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어린이
9	쥐포 스타일	김지영	비룡소
10	화학이 정말 우리 세상을 바꿨다고?	실바나 푸시토	찰리북
<b>청소년 (중학생)</b>			
1	끈대 아빠와 등골브레이커의 브랜드 썰전	김경선	자음과모음
2	소년이여, 요리하라	금정연 외	우리학교
3	수상한 진흙	루이스 새커	창비
4	쓸모없어도 괜찮아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5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문학동네
<b>청소년 (고등학생)</b>			
1	꽃 달고 살아남기	최영희	창비
2	세상을 바꾼 이슬람	이희수	다른
3	창박의 아이들	이선주	문학동네
4	하리하라의 음식과학	이은희	살림Friend
5	홀딩 파이브 도와줘!	김성빈	마리북스
<b>일반</b>			
1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	21세기박스
2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열린책들
3	근시 사회	폴 로버츠	민음사
4	내 서재 속 고전	서경식	나무연필
5	담론	신영복	돌베개
6	사랑하는 안드레아	퉁잉타이, 안드레아	양철북
7	서민적 글쓰기	서민	생각정원
8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갤리온
9	철학의 힘	김형철	위즈덤하우스
10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7년(제1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2	거짓말	카트린 그리브	씨드북
3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κρι바	한울림스페셜
4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길벗어린이
5	산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씨드북
6	아빠나무	김미영	고래벗속
7	커럼포의 왕 로보	윌리엄 그릴	찰리북
8	하룻밤	이금이	사계절
9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별
10	혼자가 아닌 날	구오징	미디어창비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503호 열차	허혜란	샘터
2	대단한 단추들	이정록	한겨레아이들
3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창비
4	바람의 맛	김유경	이야기꽃
5	분홍문의 기적	강정연	비룡소
6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 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7	엘 데포	시시 벨	밝은미래
8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9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최은옥	비룡소
10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남찬숙	미세기
<b>청소년 (중학생)</b>			
1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안야 슈튀르처	푸른숲주니어
2	사이퍼	탁경은	사계절
3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최종욱	창비
4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김흥식	서해문집
5	이런 법이 어딴어?	니콜라 린트너	탐
<b>청소년 (고등학생)</b>			
1	그린잡	박경화	양철북
2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위즈덤하우스
3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	안광복	사계절
4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시공사
5	한 스폰의 시간	구병모	예담
<b>일반</b>			
1	EBS 다크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크프라임 제작팀, 유규오	후마니타스
2	거짓말이다	김탁환	북스피어
3	공부할 권리	정여울	민음사
4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	알키
5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블드	반비
6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문학동네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8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권정생	양철북
9	숨결이 바람될 때	폴 갈라니티	흐름출판
10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서해문집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8년(제1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2	그 소문 들었어?	하야시 기린	천개의바람
3	두 배로 카메라	성현정	비룡소
4	마지막 뉴스	서정홍	웃는돌고래
5	바로 그 신발	마리베스 볼츠	지앙어린이
6	생각이 켜진 집	리샤르 마르니에	책과콩나무
7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문학동네
8	영동한 수리점	차재혁	노란상상
9	엉터리 집배원	장세현	어린이작가정신
10	오, 멋진데!	마리 도를레앙	이마주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나만 잘하는 게 없어	이승민	풀빛
2	나무도장	권운덕	평화를 품은 책
3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바르디에	씨드북
4	넘어진 교실	후쿠다 다카히로	개암나무
5	다 잘 될 거야	키어스텐 보이에	책빛
6	멋진 하루	안신애	고래벳속
7	바닷가 탄광 마을	쥘앵 슈워츠	국민서관
8	붉은 실	이나영	시공주니어
9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디디에 데벵크스	봄나무
10	플로팅 아일랜드	김려령	비룡소
<b>청소년 (중학생)</b>			
1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오찬호	나무를심는사람들
2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푸른숲주니어
3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문지현	뜨인돌
4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조성배	반니
5	운동장 편지	복효근	창비교육
<b>청소년 (고등학생)</b>			
1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북트리거
2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3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4	스타벅스에 간 소녀	소피 킨셀라	라임
5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하지현	창비
<b>일반</b>			
1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휴머니스트
2	기술 중독 사회	켄타로 토야마	유아이북스
3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4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5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승효상	돌베개
6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7	소비의 역사	설혜심	휴머니스트
8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9	예술, 역사를 만들다	전원경	시공아트
10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21세기북스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9년(제1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나는 소심해요	엘로리 페로탱	이마주
2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천개의바람
3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여유당
4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금자	비룡소
5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나는별
6	터널	헤게 시리	책빛
7	행복한 줄무늬 선물	야스민 세퍼	봄별
8	곰팡이 수지	레오노라 라이틀	스콜라
9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창비
10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비룡소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강민경	현암주니어
2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논장
3	표절 교실	김해우	크레용하우스
4	까칠한 아이	남찬숙	대교북스주니어
5	나이 도둑	정해왕	해와나무
6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옹	한울림어린이
7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풀빛미디어
8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찰리북
9	리얼 마래	황지영	문학과지성사
10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	다나카와 슌타로	천개의바람
<b>청소년 (중학생)</b>			
1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룬드베리	산하
2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	푸른숲주니어
3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서의동	너머학교
4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둘베개
5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편	뜨인돌
<b>청소년 (고등학생)</b>			
1	꿀벌과 시작한 열일곱	모리야마 아미	상추쌈
2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자음과모음
3	왜 언론이 문제일까?	박영흠	반니
4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5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특강	최원형	철수와영희
<b>일반</b>			
1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왼쪽주머니
2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김연숙	천년의상상
3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4	마녀체력	이영미	남해의봄날
5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현대문학
6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7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류승연	푸른숲
8	시가 있는 바닷가 어느 교실	최종득	양철북
9	유머니즘	김찬호	문학과지성사
10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20년(제1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b>초등 저학년 (1~3학년)</b>			
1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유다정	와이즈만BOOKs
2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김유	시공주니어
3	내일 또 싸우자	박종진	소원나무
4	내일의 동물원	에릭 바튀	봄별
5	밀어내라	이상옥	한솔수북
6	천하무적 용기맨	김경희	비룡소
7	핑 아저씨	김미소진	계수나무
8	강아지 시험	이묘신	해와나무
9	뭔가 특별한 아저씨	진수경	천개의바람
10	힙합 독수리	박주혜	비룡소
<b>초등 고학년 (4~6학년)</b>			
1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피튜니티입니다	이현	만만한책방
2	셋다운	김태호 외	현복스
3	축구왕 이채연	유우석	창비
4	간송 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김민규	토토북
5	내가 김소연진아일 동안	황선미	위즈덤하우스
6	어린 만세꾼	정명섭	사계절
7	우리는 반대합니다	클라우드오 푸엔테스	초록개구리
8	유튜브 전쟁	양은진	엠앤키즈
9	착한 마녀의 일기	송현섭	문학동네어린이
10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고소했다	공수경	대교북스주니어
<b>청소년 (중학생)</b>			
1	동물 농장	조지 오웰	.
2	저 청소년 하는데요?	김예지	21세기북스
3	질문하는 영화들	라제기	북트리거
4	체리 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5	최저 임금 쯤 아는 10대	하승우	풀빛
<b>청소년 (고등학생)</b>			
1	시간을 파는 상점. 2 : 너를 위한 시간	김선영	자음과모음
2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3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시공사
4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한겨레출판
5	페인트	이희영	창비
<b>일반</b>			
1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
2	감정 폭력	베르너 바르텐스	걷는나무
3	경찰관속으로	원도	이후진프레스
4	도시의 얼굴들	허정도	지앤유
5	로마법 수업	한동일	문학동네
6	설이	심윤경	한겨레출판
7	어차피 살 거라면,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후	메이븐
8	이토록 고고한 연예	김탁환	북스피어
9	작별 인사는 아직이에요	김달님	어떤책
10	퇴근길 클래식 수업	나웅준	페이스메이커





